

2007.07

www.airforce.mil.kr Vol.349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조종사 하계 해상 생존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게,
살아남는다

공군정책 따라잡기
레인보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공군, 공군인
2007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
최우수통제대 · 통제사 인터뷰



흑백사진-7월

정일근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뻗돌뻗돌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 정일근 시집,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푸른숲)

〈시 해설〉

7월입니다. 그대의 유년에는 어떤 나무가 옆에 있었는지요? 그대 곁에도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 있었는지요? 그대 어린 눈동자 속에도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가득 차고, 착한 노래들이 강을 따라 흘러갔는지요? 그 강물에 누워 헤엄을 치며 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던 미루나무를 본 적이 있는지요? 그 강가에서 학교의 풍금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오수에 잠기던 시간이 있었는지요?

- 시인 도종환

♣ 정일근

1985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시집 『마다가 보이는 교실』, 『처용의 도시』, 『마당으로 출근하는 시인』 등을 펴냈다.



※ 표지설명 : 조종사 하계 해상 생존훈련 중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는 교육생과 생존교관

표지사진 : 김윤해(사진작가)

공군 July 2007 No.349

발행일자 | 2007년 7월 6일(통권 제349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제연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7.07

www.airforce.mil.kr Vol.349

- 04 공군 하계훈련의 현장 1 _ 조종사 하계 해상 생존훈련
- 10 공군 하계훈련의 현장 2 _ 정보교육대대의 생존교관들
- 12 공군 하계훈련의 현장 3 _ 공군 각 부대의 하계훈련 현장
- 16 공군, 공군인 _ 2007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 최우수통제대 · 통제사 인터뷰
- 20 Bird Alert! _ 숲의 치료사 오색딱따구리
- 22 참모총장 스케치
- 24 공군은 지금
- 28 e-Sports <ACE> _ 성학승 일병의 러시(Rush)
- 30 여기는 다이만 _ 붉은 티셔츠를 입은 푸사-업 맨
- 32 World-Wide Vision _ 백발백중(STILL ON TARGET)
- 34 공군정책 따라잡기 _ 레인보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 37 PREVIEW _ 7월의 문화행사
- 38 우표로 보는 전쟁사 _ 12년 만에 끝난 천년제국
- 40 7월의 공군 역사
- 41 장병기고 _ 사물놀이와 나와 공군의 물아일체(物我一體)
- 42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성공 빌딩엔 승강기가 없다
- 44 부대소개 _ 해안선 타고 대륙 끝까지 달리는 18전비 수송대대
- 46 안전제언 _ 裝備에서 人間 중심의 안전관리로
- 50 생각하는 그림 _ 자신의 정상을 등반하라
- 5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54 시가 있는 풍경 _ 7월, 바다에서
- 55 책마을 _ 남한산성
- 56 INFORMATION _ Rainbow Project 슬로건 선정작



SKETCH1_ 조종사 하계 해상 생존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SKETCH1_ 조종사 하계 해상 생존훈련

SKETCH2_ 정보교육대대의 생존교관들

SKETCH3_ 공군 각 부대의 하계훈련 현장



글 김희연, 사진 김윤해

강하게, 살아남는다

우월의 어느 날, 남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생환훈련장에 서른여섯 명의 공군 조종사(공중근무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각각의 바쁜 일과를 잠시 젖혀 두고 귀중한 1주일을 낸 것은 공중근무자라면 4년 6개월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생환 훈련 때문이다. 말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생환 훈련은 조종사가 적의 피격이나 항공기의 고장으로 인해 항공기를 탈출해야만 하는 비상시의 행동방침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군 조종사들이 생환 훈련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고나 전투 없이 전역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환 훈련에서 배운 내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순간이 닥칠지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공군 조종사의 숙명을 일깨운다. 오늘의 교육을 내일의 현실에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교육에 참가한 모두의 마음일는지도 모른다.

생환 교육의 내용은 낙하산 강하법, 음식물 구득법, 생존의학, 독도법, 헬기 유도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은신처 구축, 해상 강하 등 실습으로 채워진다. 항공기 이탈 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조종사가 직접 체험하고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생환 훈련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더라'는 조종사들의 경험담은 생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특히 하계 생환 훈련에서는 해상 생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동계 훈련은 먹을 것을 찾기 힘든 계절에 눈 속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계에는 주로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될 경우를 예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하계에는 파라세일(ParaSail), 구조 요청, 체온 유지 등 착수부터 구조까지 전 과정을 바다에서 실습하게 된다.

탈출, 바다 입수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탈출(Ejection)을 해야 한다. 낙하산 하나에 의지해 공중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하늘과 친숙한 조종사에게도 무척이나 아찔한 일이다. "고도, 속도, 자세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낙하산이 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따른다. 생환 훈련 과정에서는 항공기를 벗어난 조종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먼저 뾰족한 나무, 자갈과 암석 위 등 다양한 공간으로 착지할 때 조종사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 훈련을 한다.

하계 훈련에서는 낙하산을 달고 바다에 착수하는 것까지 실습하게 된다. 파라세일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낙하산 훈련의 백미다. 공군이 아니었다면, 레포트로나 즐길 수 있었던 파라세일을 조종사들은 생환을 위해 배우게 되는 것이다. 낙하산을 매달고 바람을 타 입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 조

종사가 날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다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첫 하계 생환 훈련에 참여한 17비행단 이제남 대위는 "조종할 때는 워낙 높은 창공에 있다 보니 고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낙하산으로는 해수면을 직접 보면서 날아 오르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환 훈련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할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조종사다"라는 말에서 생환 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알 수 있었다.

낙하산이 바다 위에 떨어진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낙하산이 덮쳐서 익사하거나 강풍에 날려 조종사가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주의사항에 걱정도 앞선다. 보트의 뒤에 조종사를 매달아 착수에 필요한 자세를 훈련하고, 보트의 줄로 조종사를 끌어 낙하산이 바람에 휩쓸려가도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자세를 바로잡은 후에야 조종사는 낙하산을 분리할 수 있다.





표류, 구조 요청

심해 생존 훈련을 하는 날, 홀로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부담감을 고조시키는 듯이 부슬부슬 비마져 내린다. 바다에 떨어진 조종사는 먼저 구명정에 올라타야 한다. 구명정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공기층을 가지고 있다. 조난자는 구명정에서 체온을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누군가 구조하려 올 때까지 간간이 음식물을 섭취하며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무력, 공포, 고독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체력을 손실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혼자 떨어진 조종사의 상황에 실감을 더한다.

조종사들은 항공기 기종에 따라 1인승, 7인승 구명정으로 나눠 훈련을 받았다. 구명조끼를 입고 생존 도구(Survival Kit)와 함께 바다에 던져진 조종사들이 여기저기서 하나 둘 구명정에 가쁜히 오르기 시작한다. 이윽고 구명정 안에 들어온 바닷물을 헬멧

으로 퍼내고, 곧바로 덮개(Canopy)를 덮어 재빨리 체온을 유지한다.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이후에 할 일은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금세 구명정 주변의 바닷물들이 형광색으로 변하고, 주간용 연막탄과 야간용 조명탄이 여기저기서 피어오른다. 가랑비에 젖어든 남해 바다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해서, 바다에서 홀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조종사들의 간절함과 대비를 이룬다. 하늘을 떠나 바다에 던져진 조종사들은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무렵, 사이렌이 울린다. 적기가 지나가는 상황을 예상하고, 구명정을 전복하라는 신호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전에 배운 자세대로 구명정을 뒤집으며 바다에 다시 뛰어든다. 위에서 보기에 바다의 색과 구분하기 힘든 뒤집힌 구명정이 띄엄띄엄 떠다니고 있을 뿐, 그 아래 있을 조종사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시 사이렌이 울리고, 구명정 위로 조종사

들이 올라온다. 전복과 은폐를 포함한 전체 심해 훈련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다. 실제 조난 상황에서는 며칠이 될 지 알 수 없는 이 시간이 조종사들에게는 더욱 길게만 느껴질 것이다.

구조, 무사 귀환

해상 구조는 헬기로 이루어진다. 바다에 등등 떠 있는 조종사들에게 멀리서 점차 다가오는 아군의 헬기는 다시 찾은 삶의 시작이다. 헬기가 제 위치를 잡은 후 헬기에서 바스켓(Basket)이 내려오면, 한 사람씩 바스켓을 타고 헬기에 오르게 된다. 또 로프에 구조사가 매달려 한 사람씩 직접 구조하기도 한다. 조종사들로서는 구조사들에게 절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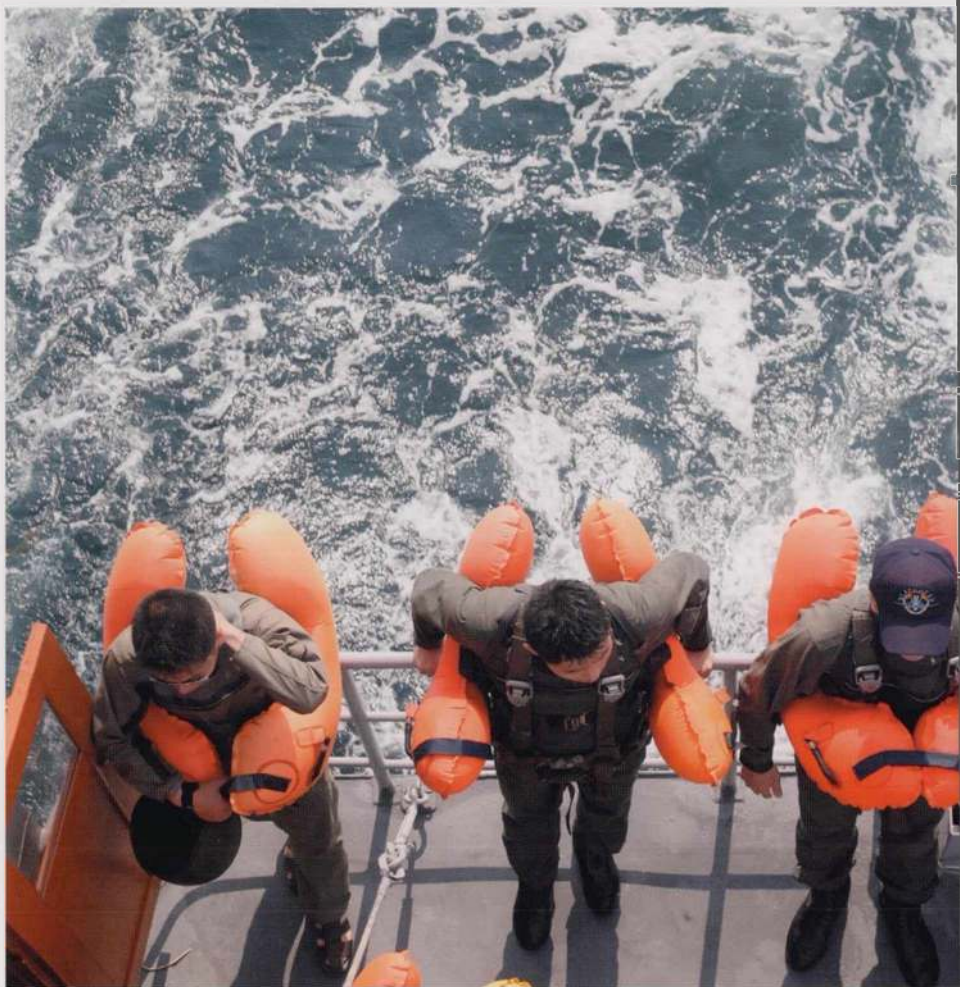
생환 훈련에는 구조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숨어 있다. 이번 하계 훈련에도 서른여섯 명 조종사를 지원하는 헬기, 선박, 숙소 등에 구조사 다섯 명을 포함해 약 40여 명의 인력이 함께했다. 공군의 교육은



생환교육대대의 주관이지만, 탐색구조전대의 협조도 긴밀하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맡은 바 책임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공군의 핵심가치인 '팀워크'가 여기서도 잘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은 서로 등을 다독이고, 동료의 몸을 뒤집어 조종복 안의 물을 빼기도 한다. 계절은 아직 6월이라 바다의 물은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물기에 지독히도 차다. 조종사들은 배 안 휴게실의 난로에 모여 몸을 말리며, 잠시나마 추위를 달랜다. 6월의 바다에서 느낀 추위와 그 후 나는 동료에는 조난의 고통과 생환의 기쁨을 단편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육지를 밟은 17비행단 한성우 대위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밝은 표정이다. "출지만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라고 씩씩하게 소감을 정리한다. 고된 1주일의 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은 공군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동료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품으로 매일같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훈련 참가자 소감

남부전투사령부 오충현 중령(진)

“생환 훈련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Q 이번이 몇 번째 생환 훈련이십니까? 이제 익숙하지는 않으신지요?

A 동계 과정 세 번, 하계 과정 두 번을 이수했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훈련입니다. 생환 훈련은 하면 할수록 중요하게 느껴지고, 매번 새롭습니다.

Q 그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으신가요?

A 하계 훈련은 해상 훈련이 주가 되지만, 동계 훈련의 코스가 참 다양합니다. 토끼, 뱀 등을 유사시 식량으로 삼기 위해 다뤄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니다.

Q 요즘의 훈련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A 저만 나이를 먹었을 뿐, 유사시에 대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조종사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는 교관들이나 늘 똑같습니다. 특히 교관들은 겨울에도 장갑도 끼지 않고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하며 수고가 많습니다.

Q 조종사로서 생환 훈련까지 한다고 하니, 집에서 가족들이 걱정하지는 않지요?

A 장인도 공군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섭섭할 정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론,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무사히 전역을 해야겠지요.

제20전투비행단 유상호 대위

“생환 교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Q 생환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동계 훈련은 두 번 받았고, 하계 훈련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생환법은 조종사에게 진짜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먹을 수 있는 풀을 가려내거나 지도를 읽어내는 방법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부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Q 살아남는 법까지 배워야 한다니, 공군으로서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A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은 받아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환 경험자들의 이야기로는 급한 순간에 생환 교육이 꼭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불시의 상황을 위해 집중해서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일주일의 교육 과정을 마친 소감은 어떤지요?

A 교관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조종사들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SKETCH2_ 정보교육대대의 생환교관들

대한민국 공군의 생존을 책임진다

글 김희연, 사진 김윤해

이번 하계 조종사 생환 훈련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 참가한 조종사들만큼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시범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 정보교육대대 소속 20여 명의 생환교관들이다. 그 중 신재권 중사와 오윤미 하사를 만났다. 신재권 중사는 17년 차 베테랑 교관이고, 오윤미 하사는 2년차지만 유일한 여성 교관으

로 활약 중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생환 훈련에 얹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공군 교관으로서 보람, 자부심, 애환을 엿볼 수 있었다.

기술, 체력, 자질이 필요한 교관

모든 생환교관들의 모자와 가슴에는 SERER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다. 생존(Survival), 도피(Evasion), 저항(Resistance), 탈출(Escape), 귀환(Recovery)을 뜻하는 표시다. SERER 마크의 의미에 따라 제대로 된 생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관은 까다로운 조건을 획득해야 한다. 교관들은 낙하산, 고공침투, 유격 등 기본 과정 외에도 응급처치, 응급구조, 스킨스쿠버, 암벽, 수목 식별 등 다양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있다.

신재권 중사는 활발한 성격과 뛰어난 운동 신경을 타고나 생환교관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 자원했다. 오윤미 하사는 부사관인 오빠의 영향으로 입대했고, '특별함 속의 특별함'을 지닌 생환교관이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한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딴 후,





병원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서 입대가 더욱 수월했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생환 훈련 교관은 그리 녹록한 일만은 아니다. 항공승무원, 항공공의관, 공사 생도 등 연간 3,0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환 교육을 거쳐 가기 때문에 연간 4~6주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육 스케줄이 잡혀있다. 한번 교육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 생환 훈련은 ‘힘보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지만,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에 따라 교관들이 늘 시범을 보여야 한다.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이번 하계 훈련 중에도 교관들은 훈련생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 시범을 보이고, 다음 훈련을 준비하고, 과정을 살피느라 교관의 일상언어는 언제나 분주하기만 하다. 비단 원활한 교육 진행만이 아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염려해 조종사들의 용태를 살피며 책임 있게 교육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생존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육

신재권 중사는 ‘생환 훈련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한 부분도 없다’고 강조한다. “조난을 당해 본 조종사의 교육 열의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만 봐도 생환 교육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교육생들이 의식주를 스스로 챙기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쓰지 못할 생존법을 교육하는 일이 가끔은 허무하지 않을까. “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다 그렇지요. 실전에서 쓰

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라는 뜻이니까 괜찮습니다.” 신 중사는 만의 하나라도 생환 훈련 때 배운 내용을 일단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다치면, 바로 생존과 직결되므로 훈련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많은 교육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쳐 가게 되는 생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터라, 교관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서 인사를 받게 된다. 자신들의 교육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두고두고 고마움을 전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 교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다.

오윤미 하사는 생환교관으로서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군인으로서도 여성으로서도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일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다른 교관 선배들의 개성을 닮아가기도 하고요.” 대학 동기들이 뽀얀 피부에 멋을 낸 복장으로 다닐 때 그늘린 피부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교육을 하지만, 그녀에게 후회란 없다.

부사관이 장교를 교육하는 곳

조종사 생환교육의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부사관이 장교를 교육한다는 것이다. 계급장을 단 채로 마주한 부사관 교관과 장교 훈련생 모두 어색해 하지 않는다.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이해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생환’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을 돕는 교관들에 대한 감사와 훈련받는 이들에 대한 교관들의 배려가 만나 훈련 내내 조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된다.

“육·해·공을 통틀어 부사관이 장교를 교육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에서도 많은 조종사들이 잠시 비행을 멈추고 모여 1주일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운 교육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부심 어린 신재권 중사의 설명이다.

만일 공군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이 홀로 생환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만일의 순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생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관들이 그의 곁에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6만이 모여 만든 6만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㉔



SKETCH3_ 공군 각 부대의 하계훈련 현장

언제 추웠냐는 듯 더위가 찾아와 등에 땀이 차기 시작할 때면, 누구나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것이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해변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애인과 일상의 피로를 날리며 백사장에서 보내는 하루는 꿀 맛 같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그것을 갈망한다. 그러나 피서는커녕, 평소보다 더욱 긴장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공군의 여름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이야기 : 공사생도들의 하계군사훈련 - 산으로! 바다로! 하늘로!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계군사훈련'. 공군사관학교는 여름에 약 한 달간 전 생도를 대상으로 하계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행·패러글라이딩 훈련과 낙하산 강하훈련, 유격훈련, 수중생환훈련 등 고도의 정신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는 초급장교로서 갖춰야 할 지휘법 및 군사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올해 하계군사훈련은, 학년별로 1학년은 항공적성함양훈련, 수중생환훈련, 지상생환훈련과 기본군사강화훈련을, 2학년은 유격훈련, 해양생환훈련과 기본군사강화훈련을, 3학년은 공중생환훈련(공수교육)을, 4학년은 지휘능력함양 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친 생도들은 4주간의 하계휴가를 나가게 된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울 것이다. 소위 오세준/공군사관학교



두 번째 이야기 : 공정통제사들의 하계훈련

- 붉은 베레모의 전사들, 공정통제사(CCT)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잠입하는 공군의 특수부대, CCT

CCT(COMBAT CONTROL TEAM)는 물자 및 병력을 공수하는 공정작전에 앞서 미리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물자 및 인력의 투하지점을 확보하고 전술 항공기의 유도 및 통제를 담당하는 부대이다. 적지에서의 통신시설을 유지하고 부대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것도 이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CCT요원들은 저·고공 공중침투, 육상 침투, 수상침투 등의 전문가인 동시에 정확한 투하지점을 지정하고 유도하는 관제사의 역할도 담당하고, 숙련된 공정통제 능력까지 갖춘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전반기 하계 야전종합훈련으로 더욱 강해져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훈련은 필수! 전·평시 공정통제사의 실전적인 침투 및 강습지역 운영 능력 등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전반기 야전종합훈련은 특히 육군의 특전사와 함께 합동 공중침투 및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하계 야전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느 때보다 더한 진지함이 묻어난다. 이번 훈련에서 그들은 공중침투는 물론 독도법·산악침투 및 생환훈련을 시작으로 산등성이를 타고 무장행군으로 적진에 침투하여 항공기를 유도하기까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FIRST IN, LAST OUT’이라는 구호아래 가장 먼저 침투 목적지에 도착하여 항공기를 유도하고 그 항공기가 무사히 적진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유도하는 CCT요원들. 연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야전종합훈련은 아들에게도 지옥훈련이 따로 없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노력을 하는 이들이기에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로 손꼽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숨은 땀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 공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중위 김기현/제5전술공수비행단





세 번째 이야기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 SCUBA훈련

-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매년 여름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의 SCUBA훈련은 항공구조사(S.A.R.T)가 되기 위한 필수훈련의 하나로 수중 탐색 능력을 향상하고, 해상 장구/장비 사용절차를 익혀 해상/수중 구조 임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항공구조사들은 수중훈련장과 저수지 등에서 보름 정도의 사전 수중 적응 훈련을 마친 후 해상에서 8일간에 걸쳐 해상수영 훈련, 장비숙달 훈련, 야간 해상 탐색구조(NVG) 훈련, 수상인명구조 훈련, 수중신호 훈련, 잠수훈련 등의 세부 훈련을 통해 해상이나 수중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험준한 산악이나 깎아지른 암벽, 한겨울의 얼어붙은 빙벽뿐만 아니라 광활한 바다와 거센 파도도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는 6전대의 부대 구호를 외치는 그들을 막을 순 없다. 소위 윤준호/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네 번째 이야기 :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의 야외종합훈련

- 20kg 완전군장의 추억

야외종합훈련, 흔히 행군이라고 하는 훈련이다. 주위의 군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다시 훈련 받는다면 피하고 싶은 훈련이 무엇인지. 화생방훈련, 유격훈련, 완전군장 구보 등 다양한 답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첫째를 다투는 것은 야외종합훈련, 즉 행군일 것이다.

훈련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신병과정 27.5km,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과정 46.5km의 거리를 20kg이 넘는 완전군장을 어깨에 멘 채 내리 짚는 태양 밑에서 동기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앞만 보고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역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받은 공군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을 월아산 장군대봉에 올라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며, 군가를 불렀던 기억 또한 지니고 있을 것이다. 전우들과 함께 힘든 산길을 오르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수많은 시간, 행군이 끝나고 돌아와서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함은 그 어떤 훈련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야외종합훈련은 전술학, 화기학, 제식훈련, 화생방 훈련 등 기본군사훈련과정에 습득한 모든 전술, 전기를 사용, 재습득하는 시간으로 후보생들의 전우애 및 협동심, 극기력을 배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위 송승리/교육사령부





대한민국 공군에는 최고의 네비게이션이 있다?

- 2007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 최우수통제대 · 통제사 인터뷰

글 소위 이태환 | 제30방공관제단



WHAT IS 'MCRC' ?

몸이 백이면 눈이 구십이라는 말이 있다. 눈이 중요하다
는 말이다. 공군의 눈에 해당하는 전국 각지의 레이더와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취합하는 MCRC(중앙방공통제
소), 이 공군의 눈을 담당하는 방공무기통제사들 중 최고
수를 가리는 대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공중전투요격관
제대회이다.

2007년 최고의 통제대 · 통제사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펼쳐진 2007년도 공중
전투요격관제대회 통제대 부문 최우수상의 영광은 3년
연속 수상의 32전대 1통제대에 돌아갔으며, 통제사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32전대 1통제대의 정성운 대위(사후
107기)가 차지했다.

먼저 통제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32전대 1통제대장
이후성 중령(공사 36기)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선, 3년 연속 최우수통제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통제대장님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24시간 교대근무 속에서 1통제대 전 요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일기에 감회가 큼니다. 그리고 뜻 깊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완벽한 방공작전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프로정신'으로 하나 되어 팀워크를 다진 것이 최우
수통제대의 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명실 공히 32전대
선임통제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하여 내년
대회에서는 4년 연속 최우수통제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요격관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말하는
건가요?**

요격관제는 지상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항적을 파악하고
있는 MCRC의 방공무기통제사들이 출격 중인 전투기에
항적정보를 전달하여 작전 수행에 도움을 주는 관제임무
의 하나를 말합니다. 전투기 내의 조종사는 전투기 레이
더를 이용하여 좁은 지역만을 파악하고 기동하지만, 방
공무기통제사는 각 레이더로부터 들어오는 항적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여 방공무기통제사들
은 조종사에게 적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전
투기의 기동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
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3년 연속 최우수통제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아시다시피 이러한 성과는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감시, 식별, 무기통제 전 요원들이 보다 더 완벽함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영공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방공무기통제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통제대원들 간에 팀워크를 다진 것이 최우수통제대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통제대원 모두가 프로가 되어, 혼이 담긴 관제를 하자는 방침에 전 통제대원이 묵묵히 잘 따라 주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우수통제대라는 빛나는 영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통제대 구호이자 30단 구호인 '우리는 조국하늘의 불침번! 완벽한 공중감시 다함께 책임완수! 아래 전 통제대원이 하나 되어 완벽한 작전에 대한 결의를 다진 것이 최우수통제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생한 통제대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선 최우수통제대 수상까지 적극적으로 통제대장의 방침에 따라주고 함께 한 통제대원들 모두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 최우수통제대 수상은 제2MCRC의 단독작전 수행 이후 최초로 실시된 대회에서 수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또한 제2MCRC의 역량과 제1통제대의 저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2전대 1통제대 여러분, 금번 영광스런 최우수통제대 수상을 계기로 공중감시 및 방공작전 최전선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아울러 제2MCRC 단독작전 이후 완벽한 방공작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전력해 주신 전대장님과 통제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31전대를 거쳐 32전대까지 5년 반 동안 MCRC에서 근무하며 이번에 최우수통제사가 된 정성윤 대위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최우수통제사의 영예를 차지한 것을 축하합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2년 임관 이래 항상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최우수통제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잘 실감나지 않네요. 대회기간동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해 2vs3 평가 부문에서, 먼저 평가받은 사람들이 요격 실패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고 평가에 임했지만 성공적으로 요격을 마쳐 만족감이 더욱 컸습니다. 통제대에서 여러모로 배려해주고 도와준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통제대장님과 동료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우수통제사가 된 것에 대해 자부심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후배통제사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세계에 탐건을 가리는 보라에 공중사격대회가 있다면 방공무기통제사들 세계에는 공중전투요격관제대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는 F-16을 비롯한 실제 전투기가 출격한 가운데 가상적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요격관제를 평가합니다. 실제 출격 조종사와 방공무기통제사의 호흡, 급변하는 기상상황 등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변수들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능력이 평가요소입니다. 각 전대에서 선발된 통제사, 통제기사 2인 1조로 이루어진 18개의 팀이 대회에 출전, F-4, F-5, F-16 요격기 각 1개의 편대를 운영하여 가상적기에 대한 요격관제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무장을 실제로 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북한 군용기 MDL/NLL 침투 상황, 귀순기 상황, HI-JACK 상황, KADIZ 침투 상황 등의 동시다발적인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관제를 해야 했습니다. 목표가 되는 가상적기도 북한의 기종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투기였습니다.

요격관제 임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2차원으로 표현된 콘솔을 보면서 3차원상의 항공기를 관제해야 하는 점과 조종사 입장에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매 순간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통제대 서열 다섯번째의 위치에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각종 임무배정 업무와 작전기능교육 교관을 겸임하고 실제작전을 수행하면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우승의 비결이 있다면?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평소 실제작전을 담당하면서 완벽을 기하라는 통제대장님의 방침에 따른 훈련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을 담은 관제를 평소에 자주 강조하시는 통제대장님의 지침과 통제대원들 간의 꾸준한 모의훈련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근무 때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철저히 반복 숙달했고 요격관제대회 참모총장상 수상경력이 있는 방공준사관 김운록 준위와 함께 훈련 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과 수정과정을 거쳐 완벽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차례의 장기복무심사에 탈락한 후의 최우수통제사 수상이라 좀 아쉽습니다. 장기복무심사 전의 수상이었으면 심사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의를 갖고 군에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장기복무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에 와서 관제특기를 받은 것이 제게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긴장감 넘치고 보람된 일을 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요격관제가 전시 제공권 장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유념하며 전역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㉞

조류박사 현 준위의 Bird Alert 2

Rainbow Project를 실천하는

숲의 치료사 오색딱따구리

‘딱 따르르 딱 따르르... 딱 딱’

봄이 되면 온 숲에 딱따구리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특히 계곡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계곡 전체가 크게 울리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요즈음에는 산 속의 사찰이나 골프장 같은 숲 속에 스피커나 통신 안테나를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아서 딱따구리가 스피커나 구조물을 나무로 착각하여, 심하게 쪼아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새의 행동은 보지 못하고 스피커나 안테나가 자주 고장난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딱따구리라는 이름은 이렇게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줄기를 오르내리면서 부리로 나무를 쪼아 나무껍질 속이나 줄기 속에 사는 곤충의 애벌레를 찾아 먹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딱따구리들이 강한 부리로 나무줄기에 구멍을 파고 동지를 만든 다음 그 속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숲 속의 많은 새들보다 노래 소리가 단순한 딱따구리는 이렇게 나무를 쪼는 소리로 제 영역을 알리거나 사랑하는 짝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를 이 새의 노래 소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 딱따구리의 노래 소리는 짧고 통명한 소리를 냅니다. 숲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소리를 내는 꾀꼬리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기에 나무를 쪼는 것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나 스피커나 안테나를 쪼면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줄 아는 모양인지 딱따구리들은 이와 같은 인공구조물들을 수시로 쪼아댑니다.

숲의 치료사 오색딱따구리

이렇게 딱따구리는 숲이 우거진 곳을 좋아하기에 나무가 없는 곳에 서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숲에서 사는 습성 때문에 어느 새보다도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이런 이유로 비행장에서 조류퇴치를 담당하는 요원들도 딱따구리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트여진 공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 주변으로 날아오지 않고 전투기에 충돌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는 다른 종류의 새들이 내는 소리들과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또한 나무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숲에 딱따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를 치료한 흔적이지요. 이 흔적은 처음에는 흉하게 보이지만 나무 자체가 흔적을 스스로 메우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차차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에 커다란 구멍을 파기 때문에 나무가 마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관찰해 보면 딱따구리가 구멍을 파놓은 나무는 얼핏 건강하게 보여도 곤충이 나무속을 파먹기 시작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색딱따구리는 이러한 나무에서 곤충을 파먹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 줍니다. 오색딱따구리가 숲의 나무들에게는 의사인 셈이지요. 숲을 치료하여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Green Air Force Campaign’의 정직한 자기 고백과 반성으로 우리 공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표면화하여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 개선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내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또한 오색딱따구리의 머리는 진한 빨간색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암수의 색이 거의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지만 특유의 행동과

크기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지요. 공군의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 빨강색은 비상상황, 회색, 열정 등을 상징하지요. 오색딱따구리가 천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둥지를 만들고 많은 새끼들을 강하게 잘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항공기 가동률 저하 방지 긴급대책의 실행과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공군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Red Air Force Campaign' 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딱따구리의 종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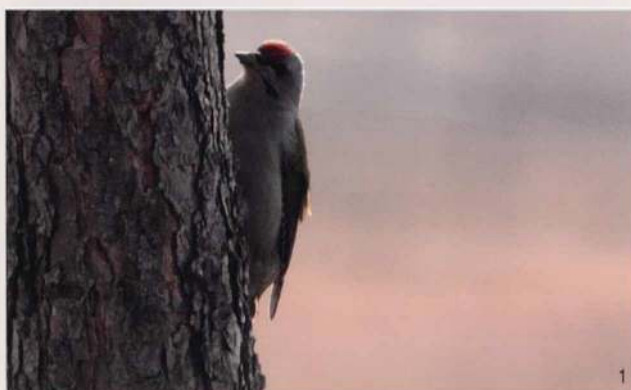
우리나라 숲에는 9종류의 딱따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서 보기 힘든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딱따구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계에서도 희귀하다는 크낙새는 경기도 광릉에 있는 숲과 강원도 설악산에서만 아주 적은 수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크낙새를 천연기념물 제1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색딱따구리의 부리는 매우 단단하여 나무를 쪼기에 좋습니다. 머리를 망치처럼 움직이며 나무에 구멍을 파는 것을 보면 마치 숙련된 조각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새들보다 머리가 몸에 견주어 크고 무거우며 나무줄기를 꽉 잡을 수 있는 발과 발톱, 나무줄기에 매달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하고 뾰족한 꼬리 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보다 혀를 4배나 5배쯤 길게 내밀 수 있고 혀의 끝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가시가 있어서 이것으로 나무속에 있는 곤충을 쉽게 꺼냅니다.

딱따구리들은 나무에 구멍을 팝니다. 구멍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여 새끼를 키우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먹이를 잡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둥지로 사용하는 구멍은 나무줄기에만 팝니다. 중간 크기의 딱따구리와 작은 딱따구리는 죽은 나무에 구멍을 팝니다. 둥지 구멍의 크기나 생김새나 파는 곳 따위는 딱따구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먹이를 잡기 위한 구멍은 나무줄기 뿐만 아니라 가지와 나무뿌리 가까이에도 파지만 둥지 구멍의 위치는 보다 세심하게 판단하여 정합니다. 자주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구멍보다도 입구 자체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천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반듯한 줄기를 선택하며,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둥지의 윗부분이 약간 튀어나오는 곳을 골라 많은 비가 내려도 둥지 안으로 비가 들어치 않게, 그리고 많이 흰하게 트여진 곳으로 까다롭고 세심하게 선정합니다.

오색딱따구리가 단단한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먹이를 잡는 모습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7월 녹음이 짙은 숲 속, 벌레가 있을 만한 나무에서 분주하게 먹이를 찾는 오색딱따구리에게 응원을 해 주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이 오색딱따구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주변의 숲 속에서 무지개 빛 내래를 펼치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숲을 푸르게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1. 위험이 생기면 이렇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는 청딱따구리 2. 새끼가 제법 커서 어미새의 모습을 거의 닮아가고 있다. 3. 먹이를 잡고 있는 딱따구리 4. 땅에서도 먹이를 잡고 있는 청딱따구리 5. 먹이를 잡고 있는 딱따구리 6. 청딱따구리 둥지 주변에 살고 있는 쇠딱따구리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독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윤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Hot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레인보우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슬로건 공모 최우수작, 「가슴속에 Green 깨끗하고 강한 공군」

참모총장은 6월 4일 공군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Green/Red/Yellow Air Force 캠페인 담당 부서장(정책홍보실장, 군수참모부장, 감찰실장)들에게 수치를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13일 군수사령부 Blue Air Force 수치 수여, 6월 18일 주간상황보고회의 시 주무참모들에게 Orange/주황, Blue/파랑, Indigo/남색, Purple/보라, 4가지 색깔의 Rainbow Project 수치를 수여하는 등 상호신뢰와 단합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였다. 이 수치들은 모든 캠페인이 종료되는 시점(8월 중)에 우리 공군이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참모총장에게 다시 헌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참모총장은 6월 18일 공군본부에서 'Rainbow Project 슬로건 공모'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오찬을 함께 하면서 수상자들로부터 소속 부대의 'Rainbow Project'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예하부대의 적극적인 동참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수상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총 1,818점이 응모했고 「가슴속에 Green 깨끗하고 강한 공군(상사 정중화/작사 작전부 기동처)」 등 최종 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 6월 4일, 정책홍보실장에게 Green Air Force 수치를 수여하고 있는 참모총장
2. 6월 13일, 군수사령관에게 Blue Air Force 수치를 수여하고 있는 참모총장
3. 6월 18일, 슬로건 공모전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참모총장





4

5

6

7

4. 참모총장은 6월 6일, 제52회 현충일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5. 6월 5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참모총장
6. 참모총장은 6월 19일 공군본부에 내방한 공군전우회 서동열 회장(공사4기, 제18대 공군참모총장 역임)을 접견하고 공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7. 참모총장은 6월 21일 작전사령부를 현장지휘점검하고, 전구항공통제본부 등 주요 작전 지휘시설을 순시하며 소령급 장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전투정보센터를 순시 중인 참모총장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작전사령관, 미 51비 단장 훈장 전수

작전사령관은 6월 7일 조셉 르네스 주니어(미 51비 단장)에게 공군 발전과 한·미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을 전수하였다.



◎ 제3훈련비행단장, 사천고교생 대상 특강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3훈련비행단장은 6월 7일, 사천고등학교 강당에서 1, 2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단장은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참의미에 대해 알리고, 3훈비 소개를 비롯, 조종사 양성과정과 조종사가 되는 길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평소 공군에 관한 오해와 궁금증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해소하는 등 공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 제1전투비행단, 작전가능훈련(CRT) 수료식 거행

신예 전투조종사 탄생을 알리는 작전가능훈련(CRT : Combat Readiness Training) 수료식이 5월 25일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되었다. 작전가능훈련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수료 이후 공군의 각 전투비행단 전투비행대대에 배속되어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제1전투비행단, 부대 인근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 초청행사 가져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6월 5일 부대 인근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과의 유대강화와 친선 도모를 위하여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초청된 지역 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은 ▲비행단 현황 소개 및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 브리핑 ▲T-50 시뮬레이터 시설 견학 ▲항공기 관람 ▲Hush House(소음방지시설) 견학 등의 일정을 함께했다.



◎ 제3훈련비행단 준사관단, 장성군 혁신 아카데미 하우스 방문

6월 15일, 준사관단 30명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기 위해 전남 장성군 혁신 아카데미 하우스를 방문했다. 장성군을 방문한 준사관단은 혁신 강연을 듣고, 장성군청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뒤, 홍길동 생가를 방문했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259대대, 육군특전사 요원 대상 공정화물의장교육 실시

259대대 의장중대는 6월 13일부터 3일간 육군 특전사요원 10명을 대상으로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 수행을 위한 공정화물의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교육생들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화물투하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공정화물의장중대에서 교육받음으로써 공중재보급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장병들, 노인취업박람회 봉사활동

6월 14일부터 3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던 부산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에 영내병사 80명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단본부 우지명 상병은 "일할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봉사활동의 소감을 말했다.



◎ 제8전투비행단 238대대, 9개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제238전투비행대대 9개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이 6월 8일 운항실 앞 주기장에서 있었다. 238대대의 9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은 1998년 5월 9일에서 2007년 5월 8일까지로 총 4,380여 시간, 비행거리 약 2,400만km로 이를 쉽게 환산하면 날짜로는 3,285일, 거리로는 지구와 달 사이를 34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 제15호성비행단, 관사거주 청소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

비행단 항공의무대대는 관사거주 10세~17세의 남학생과 10세~15세의 여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야간과 휴일 연장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을 주관한 항공 의무대대는 진찰 및 X선 촬영을 해주고 척추측만증 유무여부 통보와 치료방법, 치료 병원에 대해 조언해 주기로 했다.



◎ 제15호성비행단 족구동아리 'Force', 7전 8기 끝에 우승

제15호성비행단 족구동아리 'Force'가 6월 10일 성남공고에서 열린 제6회 성남시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에서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이번 대회는 32개팀 2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자기 회사와 부대의 명예를 걸고 자원을 가리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족구의 붐 조성은 물론 각 선수들간 친목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6전투비행단, 군·관 합동 소방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30일, 부대 인근 지역 소방서들(영주·안동·상주·문경 소방서)과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불시의 대형 화재에 대처하는 군·관 임무 협조 능력과 신속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총 14대에 이르는 차량과 65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훈련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 국방여성정책팀장, 제17전투비행단 방문

6월 1일, 국방여성정책팀장이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 여군 및 여군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부대의 여군 및 여군무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국방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국방여성정책팀장(대령 민경자)과 부대의 전 여군 및 여군무원은 대회의실에서 여군 및 여군무원 인사운영과 근무·복지여건, 국방여성정책 추진업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 제16전투비행단 2007년도 하계 안전회의 실시

제16전투비행단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2007년도 하계 안전회의를 6월 20일에 실시하였다. '긍정적인 사고로 건강한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시작된 안전회의는 하계 기상특성(기상대), 여름철 건강관리(의무전대), 비행/지상 안전 분야(감찰실)순으로 진행되었다.



◎ 제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소년가장 방문 자원봉사

6월 20일 제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 본부는 청주시 외하동 소재 결연 소년가장집을 방문하여 장판교체, 대청소, 이불빨래, 쓰레기 처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군수전대 본부는 2006년 6월부터 부대인근 소년가장과 결연하여 매달 생활보조금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가정을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18전투비행단, 귀순자 초청 안보강연회

6월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18전투비행단에서 '북한과 북한군의 현실상'을 주제로 탈북 귀순자 김철남 씨의 안보 강연이 있었다. 김철남 씨는 북한군 대위 출신으로 지난 2006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 이날 강의는 북한의 실상과 남북대치의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07 July



◎ 제19전투비행단, 전군 최초 국·공립 전환 군 보육시설 개원

제19전투비행단은 6월 18일 신축 관사내 푸른하늘 어린이집 앞에서 국방부, 공군 및 여성가족부, 충주시청 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최초 국·공립 전환 군 보육시설 개원식을 가졌다. 군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공동 기획 사업으로 열악해져가는 군 보육환경을 보육시설 지자체 장기 무상 임대, 운영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 제19전투비행단, 맞춤형 사고예방교육 실시

제19전투비행단 헌병대대는 기온상승 및 심신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악습 사고 및 대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을 6월 15일 스포츠센터 중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사고예방 순회 교육은 사고예방 시청각 교육자료 시청, 사건·사고 유형별 문제점 분석 및 예방대책 등과 관련 각종 사례 및 체험을 적절히 곁들여 가며 실시, 교육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 제20전투비행단, 국가유공자 초청행사 가져

제20전투비행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1일 인근지역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부대를 방문한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61명은 부대를 둘러보고 후배 장병들의 철통같은 영공 수호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2방공포병여단 561포대 잔반 처리장 설치

561포대는 6월 각 중대에 잔반 처리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잔반 처리장 설치하는 명확한 잔반 처리장소를 제공하고 잔반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들짐승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우천시에도 용이한 잔반 처리환경을 제공하고 모기 및 파리의 서식을 예방하여 부대 위생 및 청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군수사령관, 종합군수지원체계(ILS) 패키지 체험

군수사령관은 5월 22일, 공군 군수업무의 총체적 흐름을 점검하기 위해 보급, 수송, 정비 등 군수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군수지원체계(ILS) 패키지 체험에 나섰다. 군수사령관의 이번 현장 체험은 군수물자의 관리와 항공기 창정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근무여건을 살피고 업무추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군수사령관은 실무자들과 함께 수리자재의 불출 및 발송, 요수리품의 입고와 분해검사, 세척, 조립, 성능검사 등 창정비 전 과정을 함께했다.



The Hour before the Dawn

- 성학승 일병의 러시(Rush)

■ 중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동트기 전 시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

동트기 전(The Hour before the Dawn)을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들이 많다. 아니, 아니~이! 프로게이머들이 새벽 연습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게임을 오래 끝지 않고 초반에 적에게 피해를 주려는 게이머들이 많다는 뜻이다. 먼말인지 알지? 응?? 몇 년 전 「뇌파로 저글링을 조종한다」던 장진남이 그랬고, 정찰 간 프로브로 뭐라도 하고 나오는 걸 낙으로 삼았던 악마토스 박용욱이 그랬다. 특히 「초반 저글링」이 저그의 큰 장점이던 스폰링 150원 시절에는 저글링 6마리로 한번쯤 찢어주는 것이 게임의 예의였다. 그러나 운영의 마술사라는 박태민이 등장한 이후, 노 스폰링 3해처리를 밥 먹듯 하는 마재윤이 프로리그를 평정한 이후 초반 저글링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지 못했던 「필살 저글링 러시」를 보게 됐다. 그것도 몇 게임 연속으로! 경마꾼들이 '달려! 달려!'를 외치는 심정이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그 저글링들을 얼마나 응원했는지 모른다.

부장저그 성학승

내가 부장저그 성학승을 유심히 보게 된 건 몇 년 전 듀얼토너먼트에서 게임 캐스터와 해설자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전용준(캐스터) : 부장저그 성학승,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김도형(해설) : 승진했나보죠...

전북 게토배 우승, i-touch017배 4연승, 전북 서해대학총장배 우승 등 성학승이 한창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2000년 그 때. 교복을 입고 게임하던 모습, 항상 뒷심이 부족했던 저그라는 종족으로 수많은 역전승을 해냈던(그래서 오펝이 저그라고도 불리웠던) 그 때는 이미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이 있어서 성학승을 눈여겨보지 않았었다. 해설이 재미있어서 끝까지 경기를 관전했던 그 경기에서 성학승은 저글링으로 경기를 끝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2002년 KPGA위너스 챔피언십 우승, 2003년 ITV 랭킹결정전 5차 리그 2위, 2005년 LG CYON MBC 스타리그 4위 등 꾸준히 많은 대회에서 상위에 랭크되었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최고의 명문이라는 SKTelecom T1에 입단, 오버트립플크라운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이루는 데 일조하게 된다.



멀고도 험난한 저그유저의 길

그러나 성학승은 '개인전 우승자'도 아닐뿐더러 '눈에 띄는 저그유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대표적 저그유저로 초기 조진락(조용호, 홍진호, 박경락), 후기 변태준(변은중, 박태민, 박성준)을 꼽았다. 특히나 SKT로 팀을 옮긴 이후 뛰어난 팀원들에 밀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개인전에서 팀플로, 팀플에서 벤치로 옮겨 앉는 시간이 늘어났다. 스타리그라면 누구보다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 나조차도 2005년 11월 온게임넷 프로리그 철의 장막에서 최연성과 팀플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것 이외에 크게 기억에 남는 성학승의 경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물론 많이 이기기는 했다. 단지, 매우 중요하거나 특이했던 경기가 적었을 뿐). 군대에 가기 전 고별전에서 김구현에게 승리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긴 했지만, 타 프로게임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습환경이 부족한 수밖에 없는 공군ACE에서 그가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여전히 프로의 세계는 험난했고, 양대 스타리그에는 마재윤이라는 걸출한 저그유저의 광휘(光輝) 아래 다른 저그 게이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비상(飛上)

5월 22일 명가(名家)라는 KTF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성학승은 이미 개인전 4승을 거두고 있었다. 친정팀 SKT의 도재욱을 시작으로 허영무(삼성전자 칸), 최육명(이스트로), 장욱(CJ 엔투스)을 차례로 꺾은 그는 계속되는 승리보다도 너무 멋진 인터뷰(폭탄발언)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3연승 뒤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 초반 저글링 활용도를 높이는 이유는?

성학승: 사실 경기를 끝내자고 하는 전략은 아니다. 피해만 주고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것이 전략의 전부다. **그러나 나의 의도와 달리 선수들이 못 막았다.**

나의 의도와 달리 선수들이 못 막았다.

나의 의도와 달리 선수들이 못 막았다.

나의 의도와 달리 선수들이 못 막았다.

「승리의 성 일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그 때 성학승의 그 자신감(지나치게) 넘치는 발언은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넵호 머시파~!', '후덜덜' 따위의 리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달렸다. 그러나 팬들은 그 날 정말 '후덜덜'할 수밖에 없는 경기와 인터뷰를 듣게 된다.

성학승의 감동 3종 세트

이날 성학승은 4경기 「신 백두대간」과 5경기 「파이썬」에서 김윤환을 두 차례 꺾으며 2:1로 물리고 있던 공군ACE에 4번째 승리를, 자신에게는 개인전 6승(다승



4위)을 선사한다. 특히 에이스결정전 「파이썬」에서는 본진 구석에 몰래 해처리를 건설하여 4해처리 뮤탈+저글링 전략을 구사했다. 타 이밍리시를 무난히 막아내고, 뮤탈로 본진을 장악한 뒤 저글링으로 끝끝내 몰아붙이는 그 박력! 팬들은 초반 다소 불리했던 상황을 이겨내고 역전승한 그의 모습에서 7년 전 「오뎅이 저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최인규의 「몬티 홀」대첩 만큼이나 멋진 경기였다. 그러나 성학승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결국 팬들을 패닉(Panic) 상태에 빠트리다고 말했다.

기자: 오늘 4세트에 출전하지 못할 뻔 했다.

성학승: 3세트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3세트에 출전하는 조형근 상병에게 '손을 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손 풀고 있으라'고 답했다.** 그래서 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준비했다.

손을 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손을 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손을 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멋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원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가 아닌가. 긴 말 필요 없다.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 손 풀고 있으라고 해서 믿고 준비했다. 정말 멋있다.

공군과 공군ACE가 다시 날아오를 원동력

공군이 지난 5월부터 「상호신뢰」를 통한 「상처의 치유와 새 출발」을 목표로 「Green Air Force Campaign」을 실천하고 있다. 6월부터는 구성원들의 「조화」를 위한 「Rainbow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과 프로젝트가 내건 실천과제는 각각 다르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바로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업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큰 노력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모두에게 상처뿐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조형근 상병과 성학승 일병처럼 「긴 말이 필요 없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성취될 수 있다. 공군은 공군과 공군ACE가 함께 날아오를 원동력을 이룬 「믿음」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뎅이 저그 성학승이 그 날 기막힌 역전승을 일궈냈듯 다시 한 번 비상(飛上)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붉은 티셔츠를 입은 푸시-업 맨

■ 중위 박정근 | 제58항공수송단 카타르 파견대

少數精銳

여기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알 우데이드(Al Udeid)’ 기지. 대부분의 공군 다이만 부대 동료들이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를 비롯한 4명의 파견대원은 이곳에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수천 명의 다국적군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 기지는 이라크 자유작전을 비롯하여 美 중부사령부 예하 전 부대가 수행하는 모든 비행임무를 통제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이만 부대에서 이곳 카타르로 파견한 우리 4명의 정예요원들은 전체 항공작전에 다이만 부대의 비행 계획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인원은 적지만 우리 카타르 파견대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공군과 다이만 부대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생활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외에 어긋나거나 군인답지 못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며, 맡은 임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인원도 적고, 그래서 더욱 향수에 젖는 날도 많지만, 결코 힘들어하거나 기죽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四面楚歌

물론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다. 교대로 상황실을 지켜야 하기에 동료들의 얼굴도 보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라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부족한 환경은 그리운 고국에 대한 향수병을 더욱 부채질한다. 아니 고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고, 또래의 공군장병들을 볼 수 있는 다이만 부대에라도 가서 생활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쿠웨이트와 기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지만, 강한 해양성 기후로 습도가 높아 체감기온은 거의 살인적이기에 이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머물렀던 다이만 부대가 더욱 그림다.

결국 내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근무가 없는 시간에 틈을 내어 다국적군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자칫 서먹서먹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장병들과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 교류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 자칫 처지기 쉬운 몸을 운동으로 단련하는데, 이 모든 것이 향수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명약이다.

百折不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뜻하지 않은 일로 기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이곳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웨이트트레이닝을 위해 처음 기지내 체육관을 찾았던 날이었다. 일과 후에 근무하는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외국군 장병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얻을 겸해서 간 곳이라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체육관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안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나를 숨 막히게 했다.

마치 보디빌더들을 위한 잡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근육이 온 몸을 둘러싼 장병들이 자기 몸무게의 2~3배 쯤 되어



한국어 수업



다국적군 체육행사

보이는 무거운 운동기구들을 과성과 함께 들어올리고 있었다. 온 팔뚝에는 커다란 문신을 한 채 험악한 표정으로 상상을 초월한 무게의 역기를 들며 땀을 흘리는 모습에 순간,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이왕에 온 거 흥내는 내야지' 하며 용기를 내어 적당한 무게의 아령을 찾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아령은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뿐이었다. 평소 한국에서 10kg 정도의 아령을 들며 강한 팔 힘을 자랑해 왔지만, 여기는 가장 작은 것이 40lbs(약 20kg). 아! 기죽는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비어있는 벤치프레스를 찾아 60kg 정도를 계산해 엎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흑인 병사가 나와 내가 들고 있는 무게를 보고는 살짝 웃는 것이 아닌가. 그 친구가 들고 있는 역기를 쳐다보니, '젠장, 300lbs가 훨씬 넘잖아.' 순간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구겨진 자존심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보고 한 번 웃어 주고는 헬스장의 가장 한 가운데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당당하게 엎드려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푸시-업(push-up)'을 시작했다. 주위의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뭘 하나?' 하면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사관학교 시절 선배들로부터 아주 사랑스럽게(?) 배운 푸시-업. 자신 있었다. 50개를 넘어 60개 정도가 되었을 때 주위의 시선은 점점 늘었다. 아픈 팔을 위로하며 내 자신을 한계로 밀어 붙였다.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아까 그 웃었던 흑인을 한번 쏘아 보고는 그만 하려 했는데, 그 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Wow, he played push-up over 100." 여기서 그만 뒤서는 안되겠다 싶어 마비되어 가는 팔을 무시하고 계속 했다. 130개를 넘어 150개에 이르는 순간 힘차게 일어났다.

내 주위에 있던 거대한 덩치의 장병들이 대단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아까의 그 흑인 병사도 입을 벌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내가 입고 있던 붉은 악마 티를 보여주고는 체육관을 나섰다. 그 뒤로 체육관에서 나는 붉은 티를 입은 푸시-업 맨으로 통했다.

爲國獻身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 그냥 단순하게 흘러들었던 그 말의 의미를 여기 와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나도 모르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혹자는 객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 이곳에서의 생활 하나 하나는 나 자신,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내가 곧 대한민국' 이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월등한 대한민국 공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이 조금은 유지하게 보이지만 자랑스럽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기 카타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걸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설사 그것이 푸시-업이라 할 지라도 말이다. ㉙

美 공군장병들이 국가의
전략적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백발백중 STILL ON TARGET

원문 미 공군 (Airmen) Magazine
번역 중위 객준엽 |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매튜 베즈첵 중위(왼쪽)와 마크 올레닉 대위는 본 유도탄 경계시설 발사통제본부에 3일
주기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다. 3일에 한번 319유도탄대대의 다른 요원들과 교대한다.

지난 몇 세대간의 군 장병들의 영혼이 와이오밍 F.E. Warren 공군기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본 기지는 1867년에 D.A. Russell 요새로 세워져서 1930년에 Francis E. Warren 요새로 명명되었다가, 1947년에 육군에서 공군휘하로 이양될 때에 현재의 이름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름의 변화와 함께 수년 동안 본 기지가 갖춘 능력도 현저히 바뀌어 왔다.

이곳은 처음에는 기차길을 보호하는 서부전선의 기마부대로 창설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 아메리칸드림의 부와 명예를 찾아 서부로 향하던 수많은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명목이었다.

14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부대 내의 건물 및 시설들 중에는 서부 개척시절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많다. 많은 건물들이 국가역사보호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1890년에 정식으로 미국의 일부가 된 와이오밍 주 자체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있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걸모습만 보고 부대의 임무까지 역사적 유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90우주비행단 부단장인 마이클 모건 대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지에 걸어 들어오면 아름다운 적색벽돌 건물들과 길 옆의 가로수들을 보게 되지요. 그 뒤에 미사일 다발이 숨겨져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팀워크

본 기지는 미국공군산하의 미사일비행단 세 개 중 하나로서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을 보유하고 있다. 우주사령관 케빈 칠튼 장군은 말한다. “우리 장병들의 노력은 우리 부대의 최고 자산으로써 국가방어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도탄 부대들은 자국에 전략적 우산을 제공해 주며, 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에 의해 만들어진 효과입니다.”

319유도탄대대 부선임 전투요원인 매튜 베즈첵 중위는 이들 장병 중 하나이다. 그는 부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와이오밍 농촌 마을에 있는 유도탄 정보시설에서 근무한다. 매일 아침 그는 한 시간 동안의 인적 없는 시골도로를 지나, 90분 동안의 보안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임무에 착수할 수 있다.

60피트 깊이의 지하에서 일하는 그의 일은 흔히 말하는 유도탄 발사를 위한 ‘빨간 버튼’을 감시하는 일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근무 시간 내내 각종 체크리스트와 수치를 검사해야 하고 또한 귀에 수시로 착용하고 있는 이어폰으로 유도탄 체계 내의 상황을 듣고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인 마크 올레닉 대위와의 친한 관계 때문에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 그들은 11월부터 한 팀으로 일해왔다.

“저희가 가진 보직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둘은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임무를 같이 수행하다보면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짧은 단어 몇 마디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약 캡슐을 닮았다고 해서 캡슐이라는 별명이 붙은 좁은 업무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다보니 여기에선 팀워크가 더욱더 중시된다. 여기에는 책상 2개, 모니터 몇 개, 그리고 이층침대 하나가 들어갈 자리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업무환경에 불평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만약 유도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오면, 그 임무는 다만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종 점검사항과 행동절차가 정해져 있고, 또 두 명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동시에 시스템에 넣고 돌려야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베즈척 주위는 이런 날이 절대 오지 않길 바라는 동시에, 사망감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여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발사명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탄 관련 임무는 고독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다. 캡슐 위 지상의 건물에는 지원인력과 와이오밍, 콜로라도, 그리고 네브래스카 여러 곳에 위치한 이와 같은 지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보안병력이 위치하고 있다.

삼엄한 경비

유도탄 경계시설관리자로 있는 폴 보벤모이어 하사는 본 보직으로 오기 전에 C-130 수송기 엔진 정비사로 근무했을 때와 많은 차이점을 느낀다. 시설관리자로서 그는 임무의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말이다. 그는 매일 정비지원요청 전화통화를 하거나 시설 주위의 감시센서를 동물이 건드리는 것을 예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시설관리자는 정말 모든 종류의 일을 다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체계에 대한 기본개념이 잡혀있어야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직접 고치거나 적합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요.”

수행하는 임무의 종류 때문에 유도탄 시설 주위의 경비태세는 매우 삼엄하다. 외부에서 캡슐까지 도달하기까지 요원들은 수 겹의 보안검사를 거쳐야 한다. 본 시설에 근무하기 위한 경비요원들은 특수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과정 중 일부는 F.E. Warren 기지 북쪽으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주방위군 기지인 캠프 건지(Camp Guernsey)에서 이루어진다. 제90지상전투훈련과정의 담당자인 조세프 갤러거 소령은 본 교육이 장병들의 보안 및 경비업무 수행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본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험이 많고 우수한 경비병력들의 협력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불상사가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지요.”



▲ 캠프 건지의 특수훈련과정에서 경비요원들이 대인접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요원들은 이곳 90지상훈련대에서 호송보안, 저격임무 및 근접전투훈련을 받는다.

전력증강

본 훈련은 우주사령부의 전력증강 노력의 일환이다. “저희 우주사령부는 요즘 모든 부문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사령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 중 하나이지요.”라고 칠튼 사령관은 설명한다.

발사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적의 공격 시 유도탄 발사시설을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한 커다란 강철 문인 비플러그(B-Plug)의 강화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전자작동기는 195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서 작동해서 문이 닫히기까지 몇 분씩이나 걸린다. 새로운 시스템은 수초만에 차단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이런 정보태세는 핵관련 임무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모건 대령은 말한다. “핵무기를 다룰 때는 하루도 빠지 않고 최상의 임무 수행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연장통 안에는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무쇠망치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무쇠망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무쇠망치의 삶

파울라 테일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유도탄무쇠망치는 단순한 종사직종이 아닌 존립의 이유이다. 테일러 양은 위렌 ICBM 역사 박물관의 관장으로서 유도탄임무에 대한 깊은 배경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F.E. Warren 유도탄부대의 창설 뒤 정확히 일년 후인 1959년에 이곳 와이오밍의 5대 토박이로 태어났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유도탄에 둘러싸인 지역에 살기가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다 했다. 대답으로 그녀는 그 유도탄들이 평생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전쟁의 도구가 과거의 말에서 현재의 미사일로 진화되었지만 어떤 부분은 항상 일정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핵심임무는 1876년이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말이다.”

※ 6월호 본 코너의 원문출처가 누락되었습니다. 6월호의 원문도 미 공군(Airmen) Magazine임을 밝혀드립니다.



◀ 유도탄경계시설 관리자인 폴 보벤모이어 하사가 두꺼운 대폭발 철문을 열고 유도탄 시설로 들어 서고 있다. 보벤모이어 하사는 319유도탄 대대원이다.

▲ 위의 미네티맨 III 대륙간탄도유도탄 훈련기기는 90우주비행단에 새로 온 장병들에게 우주사령부에서의 업무에 대해 교육하는 데에 사용된다. 본 기기는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서부, 그리고 콜로라도 북부에 퍼져 있는 미 공군의 150개 가량의 유도탄 경계시설의 모의연습도구이다.



건강한 공군, 경쟁력있는 공군을 위한 첫걸음,

레인보우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What is 'Rainbow Project' ?

정리 중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비가 온 뒤 땅은 더 굳어진다

2007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 공군에게 있어서는 2007년 상반기만으로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충분했던 반년이였다. 이른바 '공군의 위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많은 공군인들이 절망과 고통에 빠지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으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국민들도 등을 돌리는 듯했다.

그러나 비가 온 뒤 땅은 더 굳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공군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안정을 되찾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비를 흠뻑 맞은 후 태양이 다시 얼굴을 내밀면서 갈라진 땅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늘 저편에는 무지개가 경쾌하게 걸린 느낌이랄까?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제30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김은기 대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믿음직한 공군'이라는 목표를 정하시고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레인보우 프로젝트(Rainbow Project)'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공군, 경쟁력 있는 공군이라는 공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레인보우 프로젝트(Rainbow Project)'란 무엇인가?

'레인보우 프로젝트(Rainbow Project)'는 희망과 꿈, 미래의 비전을 상징하는 레인보우(Rainbow), 즉 무지개의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공군은 무지개의 색깔이 지닌 각각의 의미와 그 특성에 부합하는 일곱 가지 캠페인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각 분야별로 변화해왔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공군을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 '경쟁력있게' 만들게 될 것이다.

색상별 의미와 추진목적

빨강(Red) - Red Air Force Campaign

무지개 중 가장 먼저 시작하는 빨강(Red)은 비상상황, 희생, 고통, 열정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Red Air Force Campaign'은 초미(焦眉)의 현안인 항공기 가동률 저하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의 실행과 함께 빠른 구조 조정 노력 등을 통해 우리 공군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황(Orange) - Orange Air Force Campaign

다음으로 주황(Orange)은 포용, 너그러움, 안정을 상징한다. 즉, 'Orange Air Force Campaign'은 병과, 특기, 계층을 뛰어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안으로는 열리고 밖으로 연결된 조직문화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노랑(Yellow) - Yellow Air Force Campaign

노랑(Yellow)은 경고와 사전예방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Yellow Air Force Campaign'은 제반분야의 사전경보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를 통하여 부정적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초록(Green) - Green Air Force Campaign

초록(Green)은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회복, 치유, 배려, 생동감을 상징하며, 'Green Air Force Campaign'을 통하여 정직한 자기 고백과 반성으로 우리 공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표면화하여 잘못된 것을 근원적으로 치유, 개선함으로써 공군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파랑(Blue) - Blue Air Force Campaign

파랑(Blue)은 안정과 믿음, 희망을 준다. 'Blue Air Force Campaign'은 이처럼 안정성을 강조한다. 높은 수준의 항공기 가동률 유지, 과학화된 비행훈련과 기량관리, 군수 조직의 개편을 통한 완벽한 정비지원으로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색(Indigo) - Indigo Air Force 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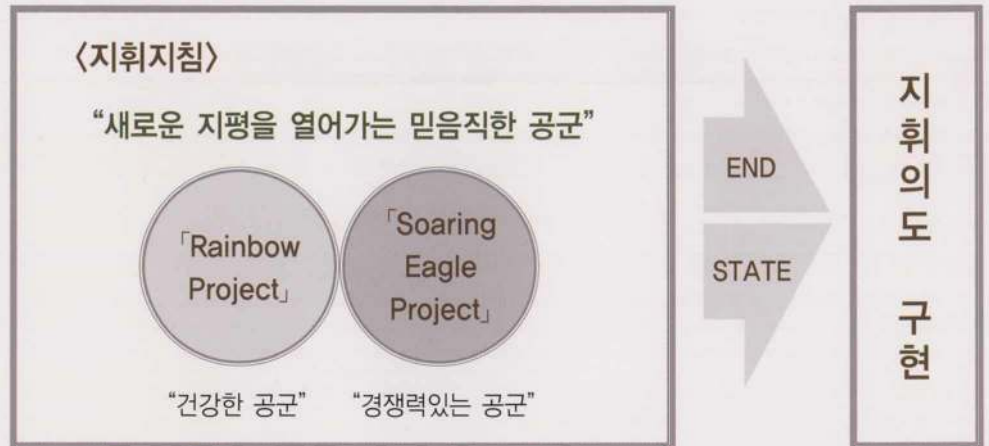
남색(Indigo)은 밑바탕과 정화, 개혁 등을 상징한다. 특히 청색이 남색에서 나온다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한 것으로 'Indigo Air Force Campaign'은 주로 교육기관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교육사, 공군대학, 사관학교 등 군내 주요 교육기관을 질적으로 혁신시켜 첨단 과학군의 위상에 맞는 고품질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 내겠다는 것이다.

보라(Purple) - Purple Air Force Campaign

마지막으로 보라(Purple)는 합동성, 창의성, 개성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Purple Air Force Campaign'을 통하여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군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함으로써 우리 공군이 현재와 미래 전쟁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강한 자신감과 믿음, 그리고 'Soaring Eagle Project'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색깔로 대표되는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 공군은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보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우리 공군인 모두는 전 분야 또는 관련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무지개처럼 모든 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완성된 모습을 갖춘 건강한 공군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성을 찾는 순간 우리는 경쟁력 있는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Soaring Eagle Project’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건강한 공군’, ‘경쟁력있는 공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믿음직한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지금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바로 공군의 미래가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다. ㉠

Rainbow Project
에세이공모

2007. ()

- 대상: 전 장병 및 군무원
- 응모기간: 6.21(목) ~ 7.20(금) 30일간
- 형식: 에세이(자유 형식)
- 분량: 2천자 내외(200자 원고지 8~10매)
- 내용
 - 1) ‘건강한 공군, 경쟁력있는 공군’의 의미와 장병들의 각오
 - 2) Rainbow project의 분야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느낀 소감, 에피소드, 갈등극복사례
 - 3) 전 공군인이 공감하고 공군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사례
- 응모방법: 각 부대 정훈(공보)실(문화담당)에 e-mail 응모

*공보 및 대외 부서는 공군본부 홍보기획담당 (sseouis@af.mil)에게 직접 제출

RAINBOW PROJECT 건강관 공군

PREVIEW

여자친구와 함께 가세요 양동근 연출의 <관객모독>

양동근이 연극판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첫 연극이었던 작품의 배우가 아닌 연출자로서의 화려한 복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연극 <관객모독>은 오픈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막에 불과하다.

양동근이 연출하는 관객모독은 일단 공연장소부터가 색다르다. 관객은 조금은 불편했던 대학로의 좁은 의자가 아닌 오히려 의자가 있어 어색한 홍대의 지하클럽에서 연극을 관람하게 된다. 그 자유스런 분위기만큼이나 관객은 공연 중간에 문자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간단한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연극을 관람하는 형식에 있어서 관객모독이 아니라 '관객자유'인 셈이다.

그러나 공연 막바지에 이르면 연극에 등장하는 네 명의 배우들은 관객들을 모독하기 시작한다. 양동근은 관객을 모독하는 데 음악, 특히 '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형식은 연극에 이른바 '랩 뮤지컬'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주었다.

연극이 끝난 다음에는 배우들과 함께 간단한 댄스 타임도 마련돼 있다. 양동근 연출의 관객모독 티켓을 소지하면 대학로의 관객모독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연극 다른 느낌, 올 여름 양동근에게 연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젊은 연극 관객모독을 만나보자.

기간 6월 8일~Open Run(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홍대 벨벳 바나나 클럽 문의 02)322-1901



오리지널 팀의 마지막 월드 투어 뮤지컬 <캣츠>



지난 2002년 5월, 뮤지컬 캣츠가 오픈 한 지 21년 만에 영국 현지 공연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7년, 그동안 캣츠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대만을 시작으로 중국, 이탈리아 등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월드 투어를 갖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리지널 팀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뮤지컬 캣츠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유명한 시 '황무지'를 지은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원작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만큼 무대와 의상, 음악적인 면에서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하다. 주인공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는 세계 유명 가수들에 의해 180여 차례나 녹음 되었을 정도이다.

사실 뮤지컬 캣츠가 제작될 당시만 해도 뮤지컬은 정통 연극인들에 의해 상업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캣츠의 제작으로 인해 영국 뮤지컬은 전성기를 맞게 된다. 초연 당시 공연 전날이 돼서야 겨우 공연자금이 모였을 정도로 제작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1983년 토니상 최우수뮤지컬상을 비롯해 뉴욕, 프랑스, 캐나다의 뮤지컬어워드에서 주요 부문의 트로피를 휩쓸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31일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4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서울공연이 진행되는 국립극장의 경우 공연사상 최초로 무대와 하나된 객석을 선보인다. 일년 중 단 하루만 열리는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뮤지컬 캣츠, 이번 오리지널 팀은 가족 모두에게 뮤지컬의 신화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기간 및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5월 31일~7월 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 7월 6일~9월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9월 7일~9월 16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9월 22일~10월 7일

문의 02)501-7888



12년 만에 끝난 천년제국

글 대위 김만식 | 군역사기록관리단



미·소 연합군은 엘바강에서 감격의 포옹을 함으로써 2차 대전의 종전(유럽전선)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엘바강에서 포옹을 하고 있는 연합군 병사들의 따뜻한 분위기와는 달리 냉전이라는 차가운 기운이 곧 이들 앞에 돌아닥쳤다.

히틀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게르만 민족이 중심이 되어 온 세상에 큰 소리 뽐뽐 치고 땡땡거려도 천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말이다.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함으로써 다소 몽환적인 그러한 꿈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현실이 되어버렸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타오른 독일의 천년제국은 한때나마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독일군의 과감하고도 허를 찌르는 전략의 구사, 압수한몸처럼 죽이 맞았던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 등은 아직까지 참호의 어두컴컴하고 습기 찬 분위기에 젖어있던 유럽 각국을 차례차례 하켄크로이츠의 깃발아래 두게 되었고, 급기야는 마지막 노선이 버티고 있던 막강 육군국가 프랑스마저 거친 파도와 함께 쓸어버리고야 말았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치 독일의 폭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할 경찰들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다.

히틀러는 핸들을 동토의 땅 러시아로 돌렸다.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러시아 지역이 천년제국의 생명원이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한 히틀러는 독·소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러시아 역시 성난 노도와 같은 독일군의 파상공격에 이렇다 할 저항 한번 못해보고 하루가 다르게 아위어 갔다. 이제 히틀러가 꿈꾸어 왔던 위대한 천년제국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참전을 선포하고 영국이 기력을 회복했으며 러시아 역시 불세출의 영웅인 주코프 장군이 어머니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무기삼아 강력한 일전을 걸어옴으로써 히틀러의 단꿈을 깨워 버렸다. 제 아무리 혁신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전략과 전술을 가진 최강의 군대가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3 대 1의 싸움은 그 누가 보아도 버거울 것임에 틀림없었다.

영화나 소설, 만화를 접하다 보면 1 대 50 또는 1 대 100의 영웅담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필자의 지인 중 태권도 5단을 자랑하는 친구가 예전에 농담 삼아 건넨 말이 있다. “야! 10 대 1로 붙어 봤냐?”, “나는 붙어봤어” 그 친구면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에 “그래 어떻게 됐어?” 무협지의 근사한 장면을 생각하던 나에게 그 친구 왈 “당연히 이겼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겼냐?” 소스라치며 놀라는 좌중에게 어깨를 한번 으쓱하던 그 친구, 센스 넘치는 답변이 가관이었다. “야! 10명이 한 명하고 싸우는데 당연히 이기는 거 아냐?”

제 아무리 무술의 고수라도, 제 아무리 체격이 건장하더라도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늑대와 같이 사납고 사냥개와 같이 용맹하며 충성심으로 가득 찬 군대와 연합군보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칠 줄 모르고 쏟아져 들어오는 연합군의 물량공세에 막강 전차군단 독일의 체력은 갈수록 소진되어 그 많던 점령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독일 본토에서 마지막 결전을 각오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에 빠져버렸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전쟁에서 기력을 소진할 대로 소진한 독일의 마지막 희망은 '국민돌격대'였다.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모든 국민을 돌격 앞으로! 하기 위하여 급조한 조직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군복과 무기, 탄약, 보급품 등 모든 것이 부족했다. 사냥에 쓰는 엽총과 중절모로 대표되는 국민돌격대의 그 초라한 위상은 누가보아도 무모한 발상이었다.

히틀러는 베를린이 포위당한 1945년 4월, 동부전선 각지에서 소련군이 자행한 무자비하고 끔찍한 보고들을 접하고는 자신의 여비서인 트라우들 용에에게 다음과 같이 심정을 표현했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요, 아시아의 초원에서 온 짐승들이오... 내가 이끄는 이 전쟁은 유럽인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하오!"

하지만 승리의 힘찬 함성 대신, 가까이 들려오는 건 러시아군의 군화소리뿐이었으며 갈수록 그 소리는 커져만 갔다. 히틀러는 베를린의 마지막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천년제국의 영원한 통통을 꿈꾸었던 히틀러의 자살은 그가 꿈꾸어 왔던 그 천년제국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모래성의 물기가 증발해 버리면 그 모양새는 그대로이지만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알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천년제국의 꿈 역시 연합군의 거센 파도에 부서져 버렸다.

히틀러의 자살과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에선 더 이상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지 않았지만 소련과 연합군이 분할 점령한 독일지역은 냉전의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안게 되었다. 게르만 민족에게 천년의 영광을 선사하겠다는 히틀러의 달콤한 약속은 12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고 천년제국 대신 민족분단이라는 깊은 상처를 독일국민들 가슴에 남겨주게 되었다.

「우표로 보는 전쟁사」를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유럽 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호부터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표로 보는 전쟁사 시즌 2 〈아시아전쟁사 편〉」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소련이 베를린을 점령함으로써 4개국이 독일을 분할하였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동독으로, 그 외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은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2 독일 패망하면 떠오르는 사진, 붉은색의 소련국기가 패배가 된 베를린을 바라보며 펼쳐이는 장면에서 말로 형언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느껴진다. 3 베를린 시가지에 진입한 소련군 병사들이 독일군 잔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장면 4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베를린 대공방전에는 소련군 외에도 폴란드군을 비롯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군 등이 참전하였다. 사진은 전투 중인 폴란드군 병사

7월의 공군 역사

자료장려 군역사기록관리단

- 7월 1일 ● 작전사령부 창설(1961, 오산)
● 육군방공포병 공군으로 전군(1991)
- 7월 2일 ● F-51 무스탕 전투기 인수(1950)
- 7월 9일 ● UH-1B 헬기도입(1977)
- 7월 12일 ● 군수사령부 창설(1966)
- 7월 15일 ● 공군대학 창설(1956, 여의도)
- 7월 16일 ● H-19D 헬기도입(1958)
- 7월 27일 ● 6·25 전쟁 종전(1953)
- 7월 28일 ● 국산 경향공기 새매호(PL-2) 제작(1972)



공군작전사령부가 1961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은 1955년 6월 20일 F-86 제트전투기 도입을 시작으로 공군력 증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규모가 커지고 지휘의 폭이 급격히 신장됨에 따라, 전투작전 임무부대를 통합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1961년 7월 1일,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된다. 창설 당시 2개 전투비행단, 2개 비행전대에 불과하였던 작전사령부는 2007년 현재 남부전투사령부, 방공포병사령부, 제30방공관제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전투비행단의 전력을 지휘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공방위 임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F-51 무스탕 전투기 인수

한국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L-4/5 및 T-6 항공기로는 남하하는 북한군 탱크를 파괴할 수 없었다. 공군은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 원조를 요청하여 1950년 6월 26일 공군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을 포함한 10명의 조종사를 일본의 이다즈게 기지로 파견하였고, 단기간의 F-51 기종전환 훈련을 마친 이들 조종사들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직접 조종하여 현해탄을 건너 대구기지에 도착하였다.

한국공군은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F-51 전투기로 1950년 7월 3일 대구기지에서 출격을 개시한 이래 여의도, 평양, 미림, 강릉기지로 이동하면서 휴전시까지 후방차단 및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8,500여 회의 출격을 기록했다. F-51은 1957년 6월 27일 퇴역하였다. ㉠

1950



대구상공을 비행 중인 F-51편대

사물놀이와 나와 공군의 물아일체(物我一體)

글 일병 이찬영 | 방공포병사령부



셋, 둘, 하나. 어울림

상쇠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상적인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되면 숨을 고르고 내 장구 소리의 울림에 집중한다. 그러나 상쇠의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상쇠의 팽과리 소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혼자말로 내뱉는 추임새까지 느껴야 한다. 절정의 순간에는 숨을 멈추고 내 장구소리와 상쇠의 팽과리 소리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일치가 되어야 한다. 길지 않다. 셋, 둘, 하나.

외로움의 해방구

미국생활은 정말이지 외로웠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돌아올 기약도 없이 뉴욕으로 향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친구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이 요즘도 가끔 꿈에 나와 새벽잠을 설치곤 한다. 그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단 한 가지 활동이 다니고 있던 뉴욕주립대의 덩덕쿵이(DDKY)라는 사물놀이 동아리였다.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던 내게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덩덕쿵이 모임은 생활의 활력소이자 유일한 해방구였다.

매년 추석이 되면 뉴욕 교민들은 브로드웨이에서 모든 차량 통행을 막고 한국 사람들만의 퍼레이드를 한다. 바로 그곳에서 덩덕쿵이는 1년 중 가장 큰 공연을 했다. 그리고 거리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장단에 맞추어 강강수월래를 했다. 끊임없는 앵콜! 이때 만큼은 외로움도 없고, 마음속에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었다.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군대에 왔다. 사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그림기도 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군대는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해서 공군을 지원했다. 호기롭게 입대했지만 짧지 않았던 유학생활과 적지 않은 나이, 가끔 드는 '뻘히 왔다'는 후회, 생경스러운 군대 문화 안에서의 생활은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힘들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뭉칠 수 있는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서글펐다.

그러던 중에 우리 부대에 「웃다리 문화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매주 토요일 부대 근처 문화촌에 방문하여 도자기와 가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사물놀이 연습도 한다. 나는 물론 사물놀이 반에 들어갔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지만 「사람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한다」고 한다. 처음 미국에 갈 때, 처음 군대에 왔을 때 나도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다. 「외로움」이란 생각보다 강적이었던 것이다. 나의 그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 사물놀이였고, 특히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방공포병사령부에서 「소속감」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었다. 처음엔 아무 의미도 없었던 우리 생활관 동료들, 우리 사무실 간부님들이 지금은 친구 같고, 가족 같다.

물아일체

나는 스물여섯 살이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이등바등하던 철 없던 내가 아니다. 사물놀이를 통해서, 미국생활과 군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47





성공 빌딩엔 승강기가 없다

쓰레기통에서 썩을 뻔 했던 두 흥행작

1994년,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로버트 제메키스), 각본상, 남우주연상(톰 행크스) 등 주요 부문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랬던 이 걸작의 각본이 한 동안 빛도 못 본 채 쓰레기통에서 썩을 뻔 했더니 상상이 가는지요? 파라마운트 픽처스 Paramount Pictures가 '썩'을 알아보기 전까지 수많은 투자사 및 배급사, 그리고 감독들이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지요. 한국영화 <두사부일체>의 대스타 정준호가 무려 아홉 번째 만에 캐스팅된 주인공이라면 상상이 가는지요? 내로라하는 스타배우 여덟 명이 줄줄이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운 좋게도(?) 정준호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 이랍니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란 표현을 실감케 하는 일화지요. <포레스트 검프>의 제작자가 '안목이 낮은' 투자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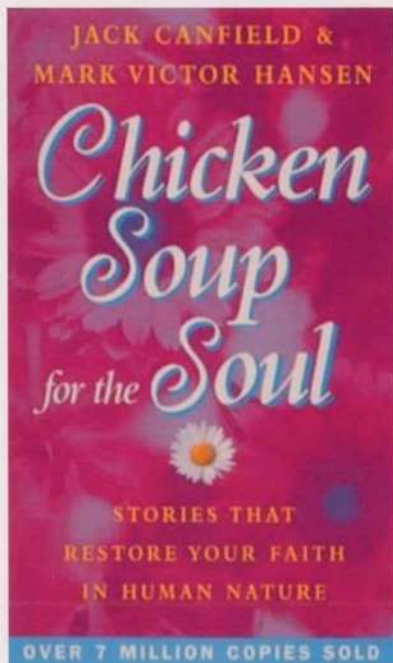
냉랭한 반응 때문에 기가 꺾여 중도에 포기했거나, <두사부일체>의 제작자가 주인공 캐스팅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프로젝트를 접어버 렸다면 오늘날의 흥행성공은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것입니다.

130번의 퇴짜 끝에 탄생한 초대형 베스트셀러

1991년, 미국의 두 저술가는 책 원고를 마무리해놓고도 허탈감 에 빠졌습니다. 자그마치 130군데 출판사로부터 출판 거절을 당 한 터였습니다. 고심 끝에 둘은 원고를 살릴 아이디어를 냈습니 다. 자신들의 책이 출판만 되면 사겠다고 약속하는 '서점 측 구 매약속 용지'를 만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발이 닳도 록 전국을 뛰었고, 합산으로 2만 권을 사겠다는 약속을 얻어냈 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131번째 출판사와 계약에 성공

했지요. 이 책은 오늘날 39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전 세계 4천 만 명의 독자를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 무수한 시리즈로 이어진 이들 초대형 베스트셀러 는 그런 산고 끝에 탄생했던 것 입니다. 그들이 130번의 퇴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첫 권의 제목은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Chicken Soup for the Soul>입니다.

성공이란 이름의 빌딩엔 승강기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말지요. 성공이란 이름의 고층건물에는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단만 존재할 뿐입니다. 승강기 속도보다야 턱없이 더디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 성공과 행복을 거머쥔 아름다운 인물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실존인물 크리스 가드너가 모델인 <행복을 찾아서 The Pursuit of Happyness>*입니다.

불행은 언제나 일시불로 온다

무대는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마친 크리스 가드너(윌 스미스)는 의료기 세일즈맨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의료기는 좀처럼 팔리지 않고, 찌들어버릴 대로 찌든 가난 때문에 결혼생활도 파경에 이릅니다. '불행은 할부로 오지 않고 일시불로 오기 때문에 대처하기 힘들다'란 말이 있지요. 사글셋집에 이어 싸구려 모텔에서도 쫓겨난 뒤로 어린 아들과 몸을 누일 썩방 한 칸조차 못 구하던 크리스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쉼터나마 순번에서 밀리면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무서워 떨며 소리죽여 오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700억 원 자산가의 감동실화

크리스는 우연히 알게 된 주식중개인의 추천으로 주식중개 인턴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합니다. 하지만 최종 한 명의 합격자로 뽑혀 정규직 사원이 되기 전까지는 보수도 무급입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노숙자 쉼터를 떠돌아야 하는 그의 비참한 삶은 그 후도로 한동안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끝에 크리스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사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를 설립할 정도로 백만장자 재산가가 되지요. 그가 보유한 자산은 현재 약 1,700억 원으로 평가되며, 수많은 자선단체에 고액현금을 내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크리스가 틴만 나면 어린 아들한테 해주던 말-"그 누구도 너한테 '넌 못해'란 말 절대 못하게 해라. Don't ever let any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를 이 작품의 명대사로 추천합니다. ㉠



이미도

외화번역가·저술가·출판인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 저음



* '행복'의 영어 철자는 happiness이지만 크리스의 아들이 다니던 빈민가 유치원의 교실 벽에 누군가가 낙서한 happiness를 제목에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한 마케팅 의도도 있겠지만 빈민가의 교육환경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어린 아들이 'FUCK'라는 낙서를 보고 입에 담자 크리스가 나쁜 말이니까 못 쓰게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미국에선 이걸 f-word라고 합니다. 언론에선 시각적인 불쾌감을 고려하여 f***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damn, shit 등은 four letter word라고 합니다. 네 개의 철자(letter)로 돼있는 '나쁜 뜻의 말'이니까요.

해안선 타고 대륙 끝까지 달리는 18전비 수송대대

- Best Driver/Best Master들의 천국 제18전투비행단 -



글 소위 박상수 | 제18전투비행단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강릉에는 제18전투비행단이 자리 잡고 있다. 빨간마후라의 기원이자 전투 조종사의 고향인 유서 깊은 강릉 기지는 1977년부터 공군 18전비의 보급자리로 사용되었다.

푸른 동해와 태백산맥의 높은 봉우리들로 에워싸인 강릉은 예부터 천혜의 군사 요충지로 기능하여 왔다. 신라시대에는 명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도 경주에 버금가는 도시로써 2소경 중 하나일 정도로 번성하였다. 특히 통일신라 말기 왕권 다툼에서 밀려난 김현창은 강릉으로 내려와 명주군왕을 자칭하며 신라 정부에 대항하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릉은 대관령과 같은 굽이굽이 험난한 고개와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나있는 아찔한 소로가 지역 내로 통하는 길의 전부이다 보니 항상 물자 수송에 애를 먹는 곳이다. 결국 강릉에서 자리 잡은 세력이 변창하기 위해서는 수송의 문제가 제일의 해결과제가 되곤 하였다.

험난한 지역에서의 수송 작전

어렸을 적 로봇이 날아다니고 무인자동차가 돌아다닐 것이라고만 철썩 같이 믿었던 21세기가 된 지금도 강릉으로의 물자 수송은 그리 용이한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강릉 지역의 산길을 따라 수송 작전을

시행해야 하는 군에게 강릉은 더욱 험난한 지역이다 하겠다. 18전비 수송대대는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본연의 수송작전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공군은 흔히 날짐승인 독수리로 비유된다. 하지만 독수리에게도 두 다리가 필요하듯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최첨단의 공군에도 지상의 수송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공군의 두 날개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유기적인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8전비 수송대대의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부대의 영향 때문인지 공군의 수송대대라 하면 수송기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수송기에 의한 수송만큼 차량에 의한 수송도 중요합니다.” 18전비 수송대대 김인성 상사(부사후 147기)의 말이다. 실제 18전비의 수송대대는 강릉에서부터 출발하여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강원도 산간 곳곳의 작전 지역을 연결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68년에 창설된 18전비 수송대대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송 작전 수행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여 2003년에는 2,000만km 무사고라는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거리는 서울-부산 간을 4만 6천729번, 지구 둘레를 498차례 돌 수 있는 엄청난 거리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그러나 18전비 수송대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수송 작전 수행에 저해가 될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수송 작전의 길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운전자 명패를 제작하여 운전사가 운전시 차량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는 운전사 명패 제도와 최우수 운전사와 정비사에게 Best Driver, Best Master 칭호를 주는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운전사 명패 제도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18전비 수송대대의 명패의 경우에는 운전사의 이름과 사진 외에 특별히 자신의 좌우명을 새겨놓도록 구성되어 있다.

운전사 명패 제도 시행에 대하여 18전비 수송대대 운영통제실장 조서현 중위(사후 114기)는 “운전사 명패 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용자가 운전자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고, 운전자는 좌우명과 자신의 이름을 보며 안전운전과 임무완수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est Driver, Best Master 선발 제도

18전비 수송대대의 혁신적인 제도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Best Driver, Best Master 선발 제도이다. Best Driver의 경우 무사고 3만km 주행 및 1년 이상 운전 경력자 중 선발되며, Best Master 칭호는 1년 이상 정비 경력자 중 간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베테랑 병사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Best Driver 또는 Best Master로 선발된 병사들에게는 2박 3일의 특박, 특별 배지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만km 무사고를 기록하여 18전비 Best Driver로 선발된 윤명진 병장(24)은 “작년에 8전비에 수송 작전을 나갔던 날 귀영시간이 빠듯했음에도 거동이 힘드셨던 관사 할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시고 간 후 할머니께서 답례로 주신 작은 알사탕 두 개가 기억에 남는다.”며 “처음에 수송 작전 시간을 맞추지 못해 아꼈었던 기억도 있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운전하다보니 이런 영예로운 칭호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선발의 소감을 담담히 밝혔다.

한편 정비사 중 최고의 영예인 Best Master 칭호를 부여받은 오민우 병장(22)은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자동차 정비는 전혀 몰랐었다.”며 “휴가 나가서 아버지의 고장난 차를 고쳐드릴 수 있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7월 제대를 앞둔 김기홍 병장(23)은 “군생활의 끝 무렵에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아쉽다.”며 “Best Driver와 Best Master로 선발된 후배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도 든다.”며 아쉬운 속마음을 드러냈다.

18전비 수송대대의 완벽한 수송 작전 수행과 혁신을 진두지휘해 온 수송대대장 함영호 중령(42세, 공사 37기)은 “칭찬은 고래도 춤

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며 “때로는 비판과 질책보다 칭찬과 격려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18전비 수송대대의 긍정적 동기부여가 많은 이들에게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렸을 적 들뜨게 떠났던 수학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와 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지에서의 각양각색의 추억은 가지고 있어도 잠에 빠져 오갔던 길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다.

음지에서 묵묵히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일을 해주고 있는 18전비 수송대대 “버스 기사 아저씨”들은 언젠가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달릴 날을 꿈꾸며 오늘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망각의 길을 뚫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오늘 하루쯤은 통근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 아저씨”께 음료수 하나쯤 권해 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裝備에서 人間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공항이나 부대 근처의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을 자주 접한다. 하지만 공중작전 임무지원을 일선 현장에서 손수 담당하는 정비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들은 부대 인근주민들의 간접적인 소음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게 각종 유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은 이를 군인으로서 맡겨진 고귀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중령 천상필 | 제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장

공군 정비사 유해환경 임무실태

공군 정비사들은 군에서 전역한 후 평균 수명이 7년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곤 한다. 전역 후 7년 만에 사망하는 주원인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야간 정비작업, 조출발퇴의 일상, 월 4회 이상의 당직근무 등으로 30여 년간 혹사당하며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과 단란한 생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다. 정비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일반 사회상식이 부족하여 전역 후 사회 적응이 쉽지 않고, 사회 진출에서 겪는 갈등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음주를 가까이 하여 건강을 해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정비특기 장교로 23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 유해환경 작업자 보호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항공기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일선 정비사의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공기 배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정비사들은 근무를 하면서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공해, 배기가스, 작업장 유해배기가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각종 질병(폐 섬유화증, 천

식, 난청 등)에 걸려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최소한의 조치인 보호 장구조차도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유해지역 근무에 따른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항공기 및 주요자상 장비 정비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위험수당이 지급되지만 같은 분야에서 작업하는 정비사는 그 위험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불평등한 수당지급제도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정비사들의 근무의욕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역 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정비작업실 근무자가 화공약품으로 인한 간세포암 간경변증 발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전투기 정비 중 극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 및 난청이 발생, 장애연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일선정비사 근무 요원 중 심폐정지, 천식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고, 고질적인 폐 질환, 천식으로 주기적인 X-ray 촬영 검사와 약물 치료를 요하는 요원들도 많다.

17전비 군수전대에만도 총 25개 작업장에 800여 명의 유해환경 근무자가 공중작전 임무지원을 위해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근무하고 있다. 전 공군을 따져보면 1만 5천명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비행단 유해 작업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체호내 항공기 시동시 정비사 1인당 지원 시간이 연평균 96시간으로 소음 및 배기가스에 노출되고, Hush House의 소음 및 배기가스, 세척제의 솔벤트, 기계·판금·용접 작업 시 분진, X-ray 사용 시 방사선에 노출된다. 각종 항전장비 작업 시 레이저 빔에 노출됨은 물론, 사진 현상액의 유독성 물질로 인한 암, 호흡곤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총총열, Launcher, Missile 세척 시 솔벤트 및 X-ray 사용에 따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연료(JP-8) Sample 검사 시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유해환경 작업장에서 다양한 위해요인에 노출되며 임무하는 요원들이 다수이다. 비행단의 정비무장사는 자신의 몸을 헌신해 가면서 전투지원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음에 절로 존경스런 마음이 들지만, 군수전대장으로서 이러한 고충을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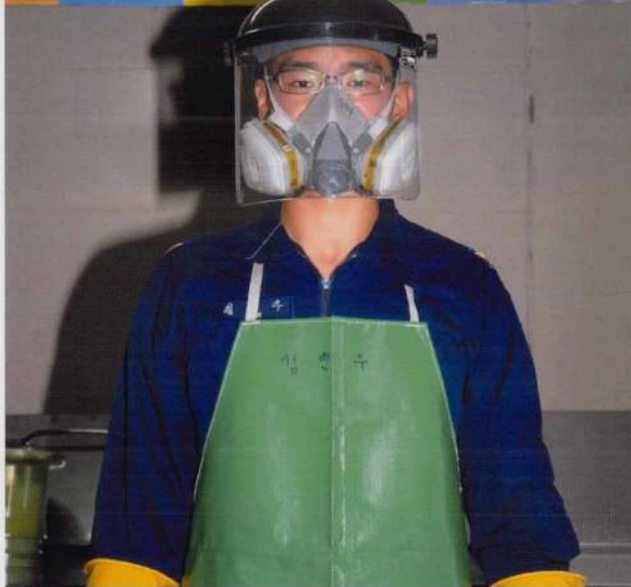
유해환경 안전관리 대책

정비사의 유해환경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오는 사항으로 작업장별 유해환경 알

림판 설치, 부족한 보호 장구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절차 수립, 유해환경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항공우주 의료원 특수신체검사 실시, 산업보건담당 임명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조치할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비행단 군수전대에 '유해환경관리 전담요원' 편제를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환경관리 전담요원이 신설되면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시설작업 조치, 보호 장구 확보 등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유해환경 작업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수당 지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요를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근무자 관리가 가능하다. 유해환경관리의 전문적인 부문을 담당할 전담요원이 운영될 경우, 유해환경에 대





한 안전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비사들의 위험 노출정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군본부 의무감실 주관 항공 우주의료원, 군참부 시설처, 항공정비처 및 운영기지 군수전대의 협조를 통해 유해환경 작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유해환경 근무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험수당 지급은 근무자의 헌신을 다소나마 보상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위험수당 지급 방안으로는 유해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대 일선 정비중대, 야대 Hush House 근무자와 비교적 노출정도가 약한 부대, 야대, 항대, 무대 야전 부서를 구분하고, 근무기간 또한 10년 이하, 10~20년,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단계적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젠 기존의 장비 중심의 업무체계가 아닌 인간중심의 업무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업무의 수행자인 정비사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정비사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작업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근무 의욕을 향상시킨다면 그 효과는 그대로 양질의 정비행위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항공기 고품질 유지와 철저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으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항공기 배기가스 흡입방지용 방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항공기 정비기장·기부는 연평균 288회(96시간) 업체호내 배기가스를 흡입하고 있고, 주기장 지역을 움직이는 항공기 배기가스 유해물질에 수시로 마시게 된다. 정비사 인체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및 보호안경을 정비중대 2개씩 3주간(97. 6. 9. ~6. 27.) 시범착용 근무결과 얼굴 표면의 따가움이 없어졌으며 눈물이 나던 것이 사라졌다. '97년부터는 착용감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이며 경제적인 도부 방진·독 마스크 및 광학 보호안경을 착용 근무토록 하여 호흡기 질환 방지는 물론 최상의 정비지원을 돕고 있다.

필자는 유해환경 안전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도부터 매년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산업보건담당요원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작업장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수강자들과 대화를 하며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데, 전담요원 인가와 위험수당 지급이야말로 유해환경 작업 정비사들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만 5천명의 공군 정비사들이 안락한 작업환경 속에서 공중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내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비사들의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

YOUNG FALCONS

우리 모든 항공인이 만든 항공소년단!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81 4층

Tel. 02)953-7543~4

Fax. 02)953-7545 / www.yfk.or.kr



자신의 정상을 등반하라

그림 김영은

© 일일명명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중

지난 2001년 5월, 서른두살의 미국 청년 에릭 와이헨메이(Erik Weihenmayer, 1968~)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했지만 에릭의 등반이 놀라웠던 것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최초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1995년 알래스카의 맥킨리(McKinley) 정복을 시작으로 1997년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Kilimanjaro), 1999년 남아메리카의 아콩카고(Aconcagua)에 이어 에베레스트 정복까지 정상적인 전문 산악인조차 성공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향해 도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대륙에 있는 최고봉 등정을 결심하고 동료 다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독할만큼 연습을 했습니다. 고산 지대의 추운 기온 속에서 손이 언 상태로 텐트를 치는 연습을 위하여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텐트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일을 수십 번씩 되풀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kg의 배낭을 메고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20분 안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또한 동료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느끼기 위해 자신의 자전거 뒤에 연결한 줄을 잡고 달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등반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준비와 노력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인 「마음의 눈으로 오르는 나만의 정상」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거나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전 저는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밟아야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정상을 찾아 등반하십시오."





고독한 영혼의 노래, 브람스

글 정홍래 | 서울대학교 음악학 석사

음악 전공자에게 좋아하는 작곡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브람스를 빼놓지 못한다. 독일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 태생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그에 관한 음악인들의 또다른 찬사. “브람스는 서양음악사에서 중요한 3B 중 한 사람이다.” 3B는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작곡가 바흐(Bach, J. S., 1685~1750), 베토벤(Beethoven, Ludwig van, 1770~1827), 브람스를 말한다. 브람스가 서양음악사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프랑스의 여류작가 프랑소와 사강(Françoise Sagan, 1953)의 작품 중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Aimez-vous Brahms...)〉라는 소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연예인의 예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더욱 친숙한데, 프랑스 소설가 사강은 마약복용 혐의로 재판정에 섰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사강의 네 번째 소설로, 1958년 작품이지만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다시 출간되기도 했다. 14살이나 많은 여인 폴르를 사랑하는 시몬과 중년의 남자 로제 사이의 삼각관계가 그려지고 있는 이 소설에서,

젊은 시몬은 14살 연상의 여인 폴르에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편지를 보내 브람스 음악이 연주되는 음악회에 초대한다. 그리고 음악회를 같이 감상한 이 둘은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39살의 폴르는 시몬과의 사랑이 잠시동안의 외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옛 애인 로제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종결을 맺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소설에서 작가 사강은 수많은 작곡가 가운데 브람스를 언급하고 있을까?

지난 번 글에서 언급했지만, 브람스는 스승과 같은 선배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를 짝사랑했다. 브람스와 클라라는 소설속 주인공인 시몬과 폴르처럼 꼭 14살 차이가 난다. 브람스가 클라라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나이 스무살 때였다. 그런데 브람스의 아버지인 요한 야코프(Johann Jakob Brahms, 1806~1872) 또한 그의 나이 25살에 17살 연상의 크리스티아네 니센(Johanna Henrika Christiane Niessen, 1789~1865)과 결혼했다. 브람스의 어머니는 거의 자식뻘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한 셈인데, 이들은 사회적인 잣대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부부였지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정에 충

실하지 않아 브람스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된다. 평생 가족과 일에 대한 짐을 안고 살았으며 결혼도 하지 못한 브람스. 그래서일까? 브람스의 음악은 '고독한 영혼의 노래'로 묘사되곤 한다.

인기작가 공지영의 장편소설 <고등어>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그는 오른손을 뻗어 운전석 오른쪽 시트에 떨어진 카세트 테이프를 천천히 주워올렸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테이프를 주우면서 그는 브람스의 현악6중주를 찾고 있었다. 가을날에, 그것도 이렇게 흐린 가을날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음악은 없을 거라고 여경은 말했었다. 안 그래 명우 씨, 하고 물을 때 그녀의 한쪽 볼에는 깊이 볼우물이 패었다. 그래, 하고 그가 대답하면 벌써 낮은 더블베이스의 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튕구는 보도 위로 부는 얇은 바람소리, 예민한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바람의 가장 낮은 소리 같은 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가을이면 언제나 그 테이프를 차에 놓고 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되는 대로 처음 손에 집어든 테이프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그만 픽 웃어버리고 말았다.

■■■■■ 출처: (공지영, <고등어> p. 12, 도서출판 <푸른숲>, 1999년)

작가 공지영은 브람스의 음악을 '흐린 가을날의 바람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진지함, 회고적, 사색적... 브람스의 음악과 어울릴 것 같은 표현이다. 브람스의 음악에는 그 특유의 우수와 안타까움이 음악적으로 녹아내려 사람들의 감성적인 면을 달래준다. 그런가 하면, 청명한 가을날처럼 높고 푸르른 하늘과 투명한 햇살을 떠올리는, 빛나는 작품도 있다. 그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브람스 음악의 매력이다.

그런데 현악6중주(sextet)에는 '더블베이스'가 사용되지 않는다. 현악6중주는 두 대의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 두 대의 첼로로 연주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용된 소설의 다섯째줄에 있는 '낮은 더블베이스의 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80년대에 민주화 투쟁을 위해 몸부림쳤던 자각있는 젊은이들의 애절한 노력이 담겨있는 소설 <고등어>와 한 평생 삶과 사랑에 대한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 무던히도 애썼던 브람스의 현악6중주는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영화화되어 1961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수(離愁)>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다. 개봉된 지 이미 40년도 더 된 영화이지만, 영화 주제가만큼은 지금 들어도 여전히 애잔하다. 본래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의 선율을 상송으로 편곡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 선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요즈음 만화책이나 드라마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노다메 칸타빌레>의 드라마 제5화에서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비행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는 주인공의 애환이 이 음악과 함께 묻어난다.

공지영의 소설에서 언급된 현악6중주 또한 브람스의 대표작으로 특히 현악6중주 1번 2악장은 주제가 여러 형태로 변화되는 '변주곡'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곡을 이끌어 나가는 주제 선율 자체에서부터 굉장한 '힘'이 느껴진다. 그의 나이 25살에 작곡된 이 곡에는 브람스의 젊은 시절 고단한 삶에 대한 투쟁적인 '의지'와 '집념'이 담겨있는 것 같다. 이밖에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담긴 <독일 레퀴엠(German Requiem)>은 합창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클라리넷 5중주곡에는 브람스 노년의 완숙미가 담겨있다. 그런가 하면, 가을날의 반짝이는 햇살과 같은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118번 중 두 번째 인테르메조(Intermezzo)는 짧은 소품이지만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브람스의 <자장가>와 <헝가리 무곡>도 잘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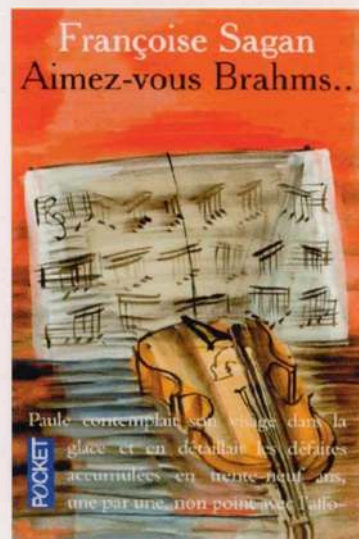


20세 무렵의 브람스

지난 번 글에서 '봄의 작곡가'로 소개한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에게 브람스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클라라에 대한 짝사랑으로 브람스는 평생을 안타까움 속에 지냈는지도 모른다. 클라라가 1896년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되지 않아 브람스 또한 삶을 마감한 것을 보면, 브람스에게 클라라는 이상적인 여인이면서 어머니같은 존재였으며, 음악적인 감수성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로베르트 슈만이 정신병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정신병원에 요양하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정성껏 클라라를 도왔던 것도 브람스였고, 로베르트 슈만의 죽음 이후로 클라라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도 브람스였다. 그렇지만, 브람스와 클라라는 서로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스스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과 사랑의 아픔을 음악 속에 담아낸 그의 각고의 노력이 느껴진다. 사랑의 아픔으로 가슴 깊이 상처받았을 때,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인생이 괴로울 때 브람스의 음악을 들어보자. 평생을 가슴깊이 울었던 '고독한 영혼'의 선율이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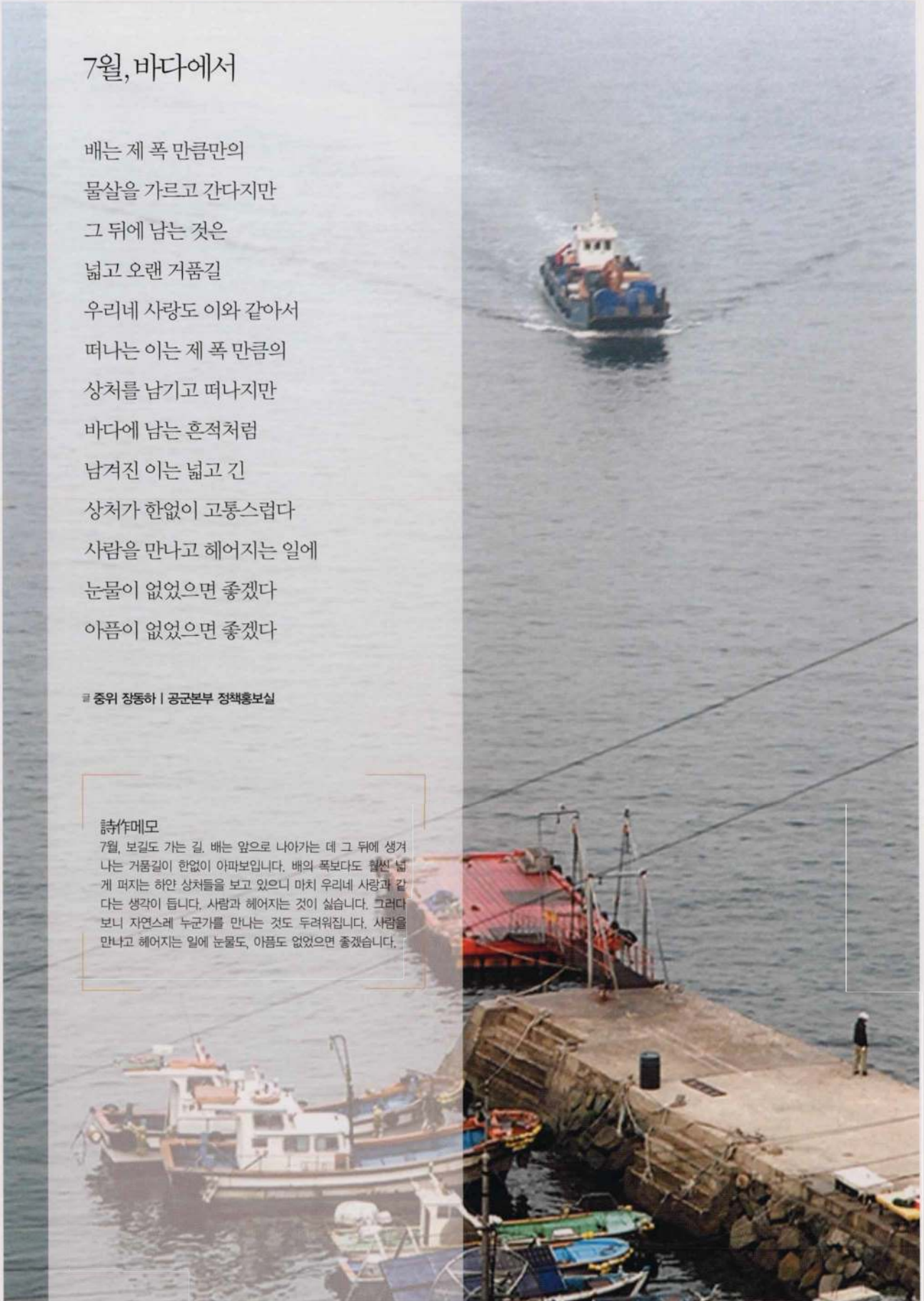
7월, 바다에서

배는 제 폭 만큼만의
 물살을 가르고 간다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넓고 오랜 거품길
 우리네 사랑도 이와 같아서
 떠나는 이는 제 폭 만큼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지만
 바다에 남는 흔적처럼
 남겨진 이는 넓고 긴
 상처가 한없이 고통스럽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 중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詩作메모

7월, 보길도 가는 길,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그 뒤에 생겨
 나는 거품길이 한없이 아파보입니다. 배의 폭보다도 훨씬 넓
 게 퍼지는 하얀 상처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우리네 사랑과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눈물도,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장편소설

남한산성

≡ 중령 강성구 | 공군본부 비서실

인 조대왕이 47일을 버티다가 청의 칸(제왕)에게 머리를 땅에 부딪치며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조아렸다는 삼전도의 치욕, 바로 이것이 남한산성의 이미지가 아닐까. 개인의 역사이든 국가의 역사이든 쪽팔리는 일 없이 구성될 수는 없겠지만 남한산성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서도 유독 치욕스러운 기억이다.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가 조선에 표류해 온 것이 1627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그와 함께 동료 두 사람이 더 조선에 억류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당시 유럽의 총포제작에 대한 상식이 높아서 훈련도감에서 총포를 만드는 일을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 고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벨테브레와 그의 동료들은 9년 후 병자호란 때 청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벨테브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사했다. 이 벨테브레가 바로 홍이포(대포)를 제조한 인물로 우리에게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하멜 표류기’를 써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유럽에 알린 인물인 하멜은 벨테브레가 조선에 온 지 26년이 지난 후에 제주도에 표류해 들어왔다. 박연과 하멜의 만남은 하멜 표류기 외에 우리나라 문헌인 <석재고>에도 나와 있는데 모국어를 거의 잊은 박연이 동포인 하멜과 만나 어렵게 이야기를 나눈 후 옷깃이 젖을 때까지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하멜은 이후로 16년간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일본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멜도 처음에 서울로 호송되어서는 박연의 지휘아래 훈련도감에 배치되었다. 이때 하멜은 조선 군인들의 훈련이 미친 듯이 엄청난 강도로 진행되는 것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18년이 지난 시점으로 인조의 아들 효종이 복수의 칼을 갈며 북벌정책을 추진할 때다.

이국인인 하멜에게 조선 군사들의 훈련강도가 큰 인상을 준 것만 보아도 당시 조선에게 남한산성의 수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왕들은 태조 이성계를 모신 건원릉에 제사를 올리고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남한산성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그 치욕의 날을 잊지 않고자 했다고 한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그 47일간의 참담한 기록을 소설화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소설만 쓰면 대박을 치는 김훈답게 이 소설은 마치 작가가 당시의 상황을 현장에서 기록한 史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근간을 이루지만 다큐멘터리처럼 실감난다. 김훈의 글은 短文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짧게 끊기는 문장구조임에도 그 글의 뒷맛이 현란하다. 그래서 더 강렬하고 사실적이다. 나는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눈(雪)먼지 이는 남한산성의 칼바람을 코끝으로 느낄 수 있었고 청나라 대군의 조여옴 속에 잠 못 이루었을 그날의 신료들처럼 답답하고 두려웠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남한산성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만약 남한산성의 고립과 같은 강요된 선택이 나를 옥죄어 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소설은 이런 생각에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끔찍한 책이다. 



• Rainbow Project 슬로건 선정작

〈최우수〉

가슴속에 **Green** 깨끗하고 강한 공군(상사 정중화/작전사령부)

〈우수〉

힘모아 하늘로, 뜻모아 우주로(소령 이춘근/교육사령부)

〈장려〉

건강한 공군, 힘찬 도약(대령 정경두/공군본부)

〈장려〉

제대로 하는 당신, 공군의 희망입니다(상사 김수홍/방공포병사령부)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공군채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참모총장

참조: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7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20일까지

1. 생환훈련을 맡고 있는 생환교관의 모자와 가슴에는 5글자의 영문자가 새겨져 있다. 해당되는 영문자와 그 각각의 의미는?
2. 희망과 꿈, 미래의 비전을 상징하는 무지개의 원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공군을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하고 경쟁력있게 만드는 공군의 실천적 프로그램은?
3.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펼쳐진, 방공무기통제사들 중 최고수를 가리는 대회의 명칭은?

2007년 6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공군교재창
2. 창공구락부
3. 최인규(마우스 오브 조로)

당첨자

경상북도 안동시 이소민
경상북도 칠곡군 류외숙
경기도 용인시 정창재
전라남도 해남군 설민영
경상남도 거제시 유병훈
울산광역시 북구 김휘곤
경상남도 진주시 문장곤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 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 Rainbow Project 슬로건

가슴속에 **Green** 깨끗하고 강한 공군